Style 조선일보

JULY 2022 vol.239

CLASH
DE
Cartier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rivole collection
Ring 8 flowers and earrings,
rose and yellow gold, rubies,
emeralds and diamonds.

서울 메종 (압구정로 441)
현대 무역센터점
신세계 강남점 – 본점 – 센텀시티 – 대구점
갤러리아 EAST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www.vancleefarpels.com - 1668-1906

TRÉSOR COLLECTION

ZOË KRAVITZ'S CHOICE

여배우이자 모델인 조이 크라비츠는 독보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빅 리틀 라이즈' 그리고 '더 배트맨'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하며 커리어를 쌓은 그녀는 현재 가장 각광받는 스타일 아이콘이자 셀러브리티 패밀리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오메가의 특별한 타임피스들은 그녀의 다재다능한 모든 순간과 함께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역동적인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타임피스 미니 트레저 26mm 사이즈 모델은 레드 플로럴 디자인의 특별한 트왈 드 주이 "더블 투어" 패브릭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OMEGA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교점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더현대서울점 무역센터점 판교점 대구점 **신세계**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구점

omegawatches.com

문의. 02 3480 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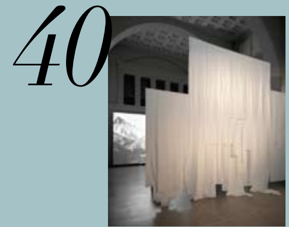
DIOR

GEM DIOR COLLECTION

Stainless steel, diamonds and mother of pearl.

클래쉬 드 까르띠에의 철학을 한층 강조한 까르띠에의 새로운 컬렉션으로, 펑크 스타일의 미학에 위트를 가미한 클래쉬 드 까르띠에 링 더블 로우.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이중성을 극대화하고, 텍스처의 대비를 활용해 리듬감과 강렬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문의 1566-7277

ART + CULTURE



GLOBAL ARTSCAPES

팬데믹 같은 재해가 세상을 덮치면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니, 자연의 심술이니 하는 푸념이나 성토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자연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볼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또 새삼 고마움을 느끼게도 됐고요. 내일이 언제나 오는 게 아니고, 자연이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극히 평범한 진실을 곱씹으면서 말이지요. 평화롭고 느긋한 산책이 아니라 매일같이 장시간에 걸친 치열한 홀로 걷기를 통해 현실적인 구원을 꾀했던 철학자 니체는 자연에서 찾아낸 세 가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광대함, 고요함, 햇빛. 이로 인해 자신의 깊은 내면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거리를 마스크 없이도 활보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풍경이 우리에게 반가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는 오랜만에 아무런 제약 없는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스타일 조선일보〉 'Art+Culture' 여름 스페셜호에서 다뤘듯 유럽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 아트 바젤, 카셀 도쿠멘타 등이 줄줄이 이어지는 '현대미술의 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놀랍도록 북적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니 어쩐지 허무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찾아온 소란이 내심 싫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과 햇빛 사이를 잇는 수많은 풍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나름의 구원 방식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풍경은 자연이기 이전에 문화이며, 숲과 물과 바위에 투사된 심상(心象)의 산물이다"라는 사이먼 샤마의 말을 기억하면서. 글 **고성연**(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15 **LOVE DIVE** 남성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다이버 워치.

16 **INTO THE MINDSCAPE IN JEJU** 내달 초 드디어 저지리에 있는 제주현대미술관에서 반세기 가까운 자신의 작업 세계를 아우르는 화가 김보희.

18 **GOLDEN TIME** 최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풀 골드 케이스 워치.

19 **TRUE COLOR** 신비로운 에너지를 품은 컬러 스톤 주얼리.

20 **SUMMER FIELD** 여름에 더욱 빛나는 라탄, 라피아 소재의 매력.

21 **DAZZLING DESERT** 사막에서 만난 2022 핫 서머 룩.

30 **EASY BREEZY** 여유롭고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해줄 서머 슬라이드.

31 **CHARMING EDGE** 스퀘어 앵글로 임팩트를 주는 각진 백의 매력.

32 **HER TIME, HER CHOICE** 오메가의 글로벌 여성 앰배서더들과 함께한 캠페인 '마이 초이스(My Choice)'.

34 **DREAMS OF 18 VENDÔME** 1997년 가브리엘 샤넬이 걸었던 거리, 파리 방돔 광장 18번지에 샤넬 부티크가 들어섰다.

35 **BE BRIGHT** 생기 넘치는 여름 테이블을 위한 형형색색의 글라스웨어.

36 **WATER SPLASH** 피부를 진정시켜줄 가벼운 여름 수분 크림.

SPECIAL_ ART + CULTURE

40 **예술가들, '상생'을 향한 사회적 실천 모델을 제시하다** 도쿠멘타는 5년에 한 번씩 1백 일에 걸쳐 독일 중부의 한적한 소도시 카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계 최고 권위의 행사. 하지만 '이웃 도시'들의 화려함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화제성이 덜했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외려 참신하고 진취적이라는 반응이 많이 나온다.

42 **최강 아트 페어는 어떻게 브랜드 파워를 키워갈까** 스위스 북서부에 위치한 바젤은 자체 인구가 20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다. 하지만 해마다 6월이면 '아트 도시'로 부각된다. 세계 최강 브랜드 파워를 지닌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Art Basel in Basel)이 열려서다. 올여름, 바젤의 아트 신은 마치 팬데믹 전으로 다시 돌아간 듯 활기를 되찾았다.

44 **현대미술 제전의 열기 속으로**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는 4월 23일 공식 개막하며 11월 27일까지 2백19일간 이어지는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프리뷰 기간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북적인 베니스의 모습은 '엔데믹'에 대한 공식 선언을 방불케 했다.

47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생물체와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감으로 기계와 생명체의 통합 등을 이야기하는 아니카 이(Anicka Yi). 한국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아니카 이를 직접 만났다.

48 **MINDSCAPE IN OUR LANDSCAPE**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며 감각했던 산책자처럼, 〈스타일 조선일보〉의 '지상(紙上) 갤러리'에서 소개하는 4명의 아티스트는 각자의 방식으로 관찰한 동시대 일상 풍경의 단면을 펼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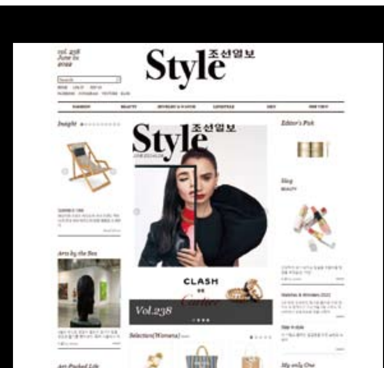
52 **이것이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다**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작가이자 영화감독, 비평가, 저술가인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지난겨울 아티스트 아이웨이웨이에 이어 올여름에는 '히토 슈타이얼'을 내세웠다.

Style 조선일보
Issue.239 July 202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권신비 **분해·제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m

LIVE THE JOY
FRED
FORCE 10 COLLECTION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BE MY HONEY

프랑스 왕실의 품격을 계승하는 주얼러 쇼메에게 꿀벌은 권력과 충성의 상징이자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다. 비 마이 컬렉션은 완벽한 대칭으로 견고한 사랑을 상징하는 허니콤 모티브를 주얼리에 적용해 사랑의 속삭임을 전한다. 크고 작은 벌집 모티브를 주얼리에 다채롭게 적용해 일상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라인업을 이룬다.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후프 이어링 5백35만원. 임페라트리스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신 빛을 발하는 화이트 골드 펜던트 네크리스 5백66만원. 문의 02-3442-3359

한여름 밤의 샴페인

서머 테이블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샴페인 리스트. (위부터) **페리에 주에 벨에포크 로제**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가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블렌딩을 맛볼 수 있다. 장미 향과 자몽, 레드베리의 풋풋한 과실 향, 그리고 캐러멜의 달콤함이 옅게 감도는 풍미를 담아 붉은 살 생선과 육류, 갑각류 요리와의 페어링이 일품이다. 750ml 가격 미정. 문의 02-3466-5701 **멈 그랑 꼬르동 로제** 피노 누아를 60% 이상 블렌딩해 붉은 과실 향의 풍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캐러멜, 바닐라 풍미와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입맛을 돋운다. 부드러운 기포와 함께 산뜻한 산미가 전해지며,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다. 750ml 10만원대. 문의 02-3466-5701 **모엣 샹동 그랑 빈티지 로제 2013** 7년간의 셀러 숙성을 거쳐 선보이는 로제 샴페인. 자두와 체리의 산뜻한 풍미, 오렌지와 라임 제스트의 산미, 그리고 후추와 다크 초콜릿의 섬세한 떫은 맛이 이어지는 고급스러운 풍미가 돋보인다. 750ml 12만원대. 문의 02-2188-5100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신정임**

HEAVEN in SCENTS

유니크한 스타일과 감성으로 프랑스 럭셔리를 떠올리게 하는 크리스챤 디올 뷰티에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휴양지 '리비에라'에서 영감을 받은 NEW 라 콜렉시옹 프리베 크리스챤 디올-디올리비에라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라 콜렉시옹 프리베 컬렉션의 네 가지 아이코닉 향수인 '쟈스망 데 장쥬(Jasmin des Anges)', '에덴-록(Eden-Roc)', '발라드 소바쥬(Balade Sauvage)', '브아 다르장(Bois D'Argent)'을 포함, 에디션 한정으로 새로 출시하는 '토바컬러(Tobacolor)'까지, 총 다섯 가지 아이코닉한 향수 컬렉션으로 선보인다. 오션 블루 컬러의 바야데르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장식한 시그너처 케이스가 이번 에디션만의 특별한 점이다. 새로워진 패키지와 향으로 휴양지에서 즐기는 여유를 만끽해볼 것. 125ml 35만원대. 문의 080-342-9500

WHITE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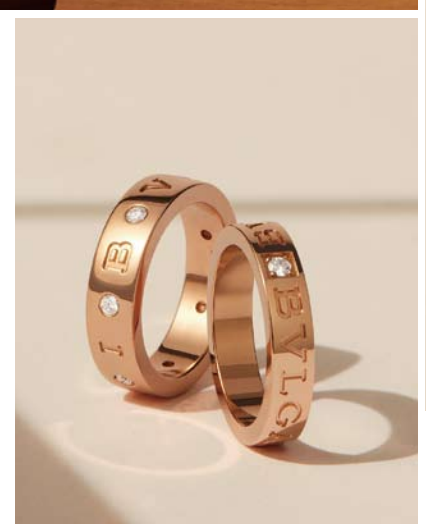
질리지 않는 화이트의 매력.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쉐론 콰트로 화이트 다이아몬드 스몰 링** 4를 의미하는 부쉐론의 시그너처 콰트로 컬렉션의 화이트 에디션 링으로 옐로 · 화이트 · 핑크 골드 사이에 특별 공법으로 제작한 화이트 하이 세라믹이 포인트로 자리한다. 9백만원대. 문의 02-6905-3322 **프레드 포스텐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포스텐 버클에 화이트 컬러 텍스타일 케이블을 조합해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을 전한다. 5백8만원. 문의 02-514-3721 **쇼파드 해피 하트 네크리스** 쇼파드의 상징인 하트 모티브와 아이코닉한 무빙 다이아몬드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해피 하트 컬렉션의 네크리스. 하트 속 자리 잡은 화이트 자개와 이를 둘러싼 다이아몬드 세팅이 우아함을 완성한다. 6백1만원. 문의 02-6905-339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TIMELESS ICON

한층 다양해진 컴플리케이션으로 보다 풍성한 라인업으로 선보인 까르띠에의 파샤 드 까르띠에 워치. 눈에 띄게 새로워진 점이 있다면, 이 개성 강한 워치에 매혹적인 텍스처 효과를 부여하는 그리드 디테일이다. 메종은 시대에 발맞춘 영민한 재해석으로 1943년 출시된, 보호 그리드를 갖춘 방수 시계의 모습을 반영해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면모를 이어간다. 그리드 디테일은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록 고안해 워치를 다채롭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각각 지름 41mm, 35mm, 30mm, 세 가지 사이즈가 라인업을 이룬다. 사진 속 제품은 지름 30mm 크기의 주얼리를 세팅한 리미티드 에디션 파샤 드 까르띠에 워치다. 2천9백만원대. 문의 1566-7277

LA DOLCE VITA!

불가리에서 2022년 리조트 컬렉션인 선셋 인 에덴(Sunset in Eden)을 출시한다. 이 컬렉션의 주요 컬러는 황금처럼 빛나는 살굿빛 여름 하늘에서 영감을 받았다. 로마의 아름다운 해 질 녘과 일몰의 빛을 조우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캐치한 컬러감으로 여행지에서의 일탈과 열정을 고급스럽게 표현했다. 핸드백부터 선글라스, 주얼리, 워치로 구성되며 올여름 휴가지에서 브라운으로 태닝한 피부에 안성맞춤으로 녹아들 것이다. 문의 02-6105-2120



MATCH POINT

럭셔리한 포인트가 되어줄 액세서리 벨트 백. (왼쪽부터) 고급스러운 블랙 램 스킨에 진주와 골드 메탈 스트랩으로 허리에 포인트를 줄 벨트형 액세서리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모노그램을 음각한 골드 체인의 벨트 쿠상 백 2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로맨틱 홀리데이

에르메스의 여름 컬렉션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경쾌한 아이템으로 가득하다. 가벼운 소재와 생기 넘치는 컬러, 그리고 플라워 자수 등 대지의 경쾌한 기운을 담아낸 화사하고 여유로운 애티튜드를 부여한다. 여름의 여유를 담은 아이템으로 유쾌한 룩을 연출해보는 건 어떨지. 실크 컬렉션의 모티브가 되는 스파게티 스트랩 장식과 플라워 자수 장식이 유쾌한 파나마 햇 가격 미정, 고트 스킨 샌들 1백30만원대. 문의 02-542-6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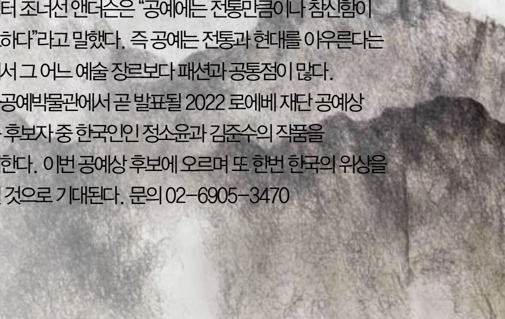
Enchanted by Séries Limitées

때로 와인은 병을 감싸는 레이블과 보틀 디자인으로도 매혹적일 수 있다. 메종 카스텔(Maison Castel)의 세리 리미떼(Séries Limitées) 시리즈 역시 그런 묘한 오라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프랑스는 물론 유럽 최대 규모의 와인 생산자인 카스텔 프레르에서 비롯된 브랜드 메종 카스텔. 이 중 세리 리미떼 3인방은 디캔터 월드 와인 어워즈 2020에서 각각 골드, 실버, 플래티넘을 획득했다. 프랑스 남부 랑그도크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든 레드 와인(65% 시라, 18% 그르나슈, 8% 무르베드르, 9% 카리냥) 깊고 강렬한 '랑그도크 페즈나 AOC', 그르나슈 60%와 40% 시라의 배합으로 야생 딸기 향으로 시작해 은은한 스모크 향과 검은 후추의 복합적인 향을 머금은 레드 와인 '지공다스 AOC', 그리고 100% 비오니에 품종의 화이트 와인으로 진한 황금빛을 발하며 풍성하면서도 상쾌한 풍미를 자랑하는 '꽁드리유 AOC' 순이다. 3년에서 12년까지 숙성 가능한 세리 리미떼 3인방은 얼마 전 서울 안다즈 강남 호텔에서 다양한 육류와 해산물 요리와의 와인 페어링 행사를 갖고 미식가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다

김준수 作

창의성, 창조력이라는 면에서 공통분모를 지닌 패션과 예술.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한 로에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로에베 재단의 '공예상'이다. 현대 공예의 장인 정신과 예술성과 독창성을 알리기 위해 2016년 제정해 올해 5회를 맞이했다. '공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재능과 비전, 그리고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예술가, 공예 작가, 에세이 작가, 큐레이터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들이 최대 30개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한다. 올해의 전문가 패널에는 2021년 최종 후보에 오른 한국인 유리 공예작가 이지용도 포함되었다. 로에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너선 앤더슨은 "공예에는 전통만큼이나 참신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즉 공예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다는 면에서 그 어느 예술 장르보다 패션과 공통점이 많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곧 발표될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 최종 후보자 중 한국인인 정소윤과 김준수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번 공예상 후보에 오르며 또 한번 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6905-3470



정소윤 作

탄도드 타원의 아이 LV 체인 패턴과
선글라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청량한 에메랄드 컬러를 담아낸
저지 스윔수트 가격 미정 **에르메스.**

18K 핑크 골드 로즈 컬러 EMV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리버레이 멘트리 팬던트
14만4천원대 **쇼메.**

골레이에이터 스타일의
V 로고 체인 샌들 19만7천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래피아 소재로 제작된 크로셰 버킷 햇
17만9천원 **꼴레지옴 뒤 메르.**

에나멜과 골드를
조합한 이국적인 분위기의
네크리스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형광 오렌지빛 또알 드
주이 리버스 패턴 레이디
디 라이트 백, 24X20cm
6백만원대 **디올.**

#1번 룩 #형광오렌지 라운 광로 립 #236 누데톤 로

for her Selection

야자수와 에메랄드빛 바다로 둘러싸인 해변에서의 이국적인
여름 정취.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부드러운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한 보우 백 스몰.
43X30cm, 2백49만원
알렉산더 맥퀸.

마더 메탈 글레이저링
에를 비롯 총 4종류 선보임
로저 비비에.

오션 프린트 블루 코튼 스커트 2백82만원 **구찌.**

패어 우드 소재에 프린트 실크를 입힌
팬어 우드 스웨터 가격 미정 **에르메스.**

스테일리스 스틸 소재에
러버 장식을 더한
어시스트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9캐럿 상당의 쿠션 컷
그린 투르말린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등을
세팅한 펜지, 레오파드 캣링
가격 미정 **부쉐론.**

옐로 크리스털 장식의
큐빅 볼 스터드 이어링
1천5백만원 **스와로브스키.**

오렌지빛 미니 트페어시스패시 레더 3단 지갑.
8X10cm, 33만원 **MCM.**

시칠리 울 소재의
조합으로 선보이는
나비용 백, 32X37cm,
1백40만원대 **토즈.**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 비통** 02-3432-1854 **끌로디 파이로** 02-3479-6127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프레드** 02-514-3721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3
샤넬 뷰티 080-805-9638 **디올** 02-3480-0104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부쉐론** 02-3277-0148 **스와로브스키** 02-1661-9060
MCM 02-540-1404 **토즈** 02-3438-6008 **구찌** 02-3452-1521

john varvatos
XX ARTISAN TEAL
the new fragrance for men
수입판매원 : 주)씨아이오인터내셔널 | www.cioe.kr | 문의 : 080.363.5454

에나멜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베르사체와 협업해 선보이는 펜디 브레이슬릿 89만원 **펜디.**

줄무늬 리넨과 코튼 소재를 조합한 플랫 샌들 1백만원대 **에트로.**

블루, 그린 등 다채로운 컬러를 조합한 케이블에 18K 화이트 골드 라지 모델 버클을 매치한 포스텐 브레이슬릿. 버클 3백81만원, 케이블 40만원 **프레드.**

메탈과 플라스틱 소재를 조합한 에이비에이터 선글라스 가격 미정 **톰 포드.**

컬러 그러데이션이 돋보이는 네오프렌 쇼퍼 백. 42X35cm, 가격 미정 **에트로.**

스타일리스트 **김혜인** 어시스턴트 **임희영, 윤미임**
에디터 **이주이**

포플린 소재 멀티컬러 하와이안 셔츠 1백43만원 **구찌.**

플라워 프린트 실크 박서 52만5천원 **톰 포드.**

for him Selection

강렬한 컬러 & 패턴으로 즐기는 리조트 패션의 정석, 트로피컬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지름 38mm 케이스로 선보이는 루미노르 듀에 워치 8백만원대 **파네라이.**

캔버스 소재 디스커버리 백팩. 37X40cm,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스웨이드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한 에스파드리유 타입의 씨사이드워크 90만원 **로로피아나.**

에센셜 컬렉션 시트론 컬러 캐빈 사이즈 러기지. 39X23cm, 92만원 **리모와.**

레드 컬러 라피아 햇 1백2만원 **프라다.**

트로피컬 패턴이 특징인 코튼 셔츠 61만원 **몽클레르 컬렉션.**

오렌지 블러섬을 중심으로 여름의 평온함을 담아낸 시트러스풍 머스크 향 선송. 100ml, 40만원 **루이 비통.**

펜디 02-514-0652
구찌 02-3452-1521
에트로 02-3446-1369
톰 포드 02-6905-3710
에르메스 02-542-6622
프레드 02-514-3721
로로피아나 02-546-0615
파네라이 1670-1936
리모와 02-2056-2257
몽클레르 컬렉션 080-311-0000
프라다 02-3218-5320
루이 비통 02-3432-1854

Love Dive

프로 다이버가 아니더라도 묵직한 그립감과 남성미 넘치는 큼지막한 다이얼 디자인으로 남성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다이버 워치. 여기에 훌륭한 컴플리케이션과 방수 기능까지 갖췄으니 더할 나위 없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러버 스트랩** 안정성 높은 그립감을 선사하는 12각면 베젤의 4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갖췄다. 가독성을 위해 이중 반사 방지 처리한 플랫 사파이어 크리스털에 야광 마커를 더했다. 최대 300m 방수 성능을 제공한다. 러버 스트랩은 개인의 손목에 맞게 커팅해 판매하며 태그호이어만의 다이빙 익스텐션 기능을 통해 잠수복을 입을 때나 손목둘레가 변했을 때도 스스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다. 3백58만원. 문의 02-548-6021

브라이틀링 슈퍼오션 헤리티지 II B20 오토매틱 44 가독성 높은 44mm 사이즈 케이스에 다이얼과 베젤, 스트랩까지 블랙으로 통일한 디자인으로 다이버 워치만의 남성적인 매력을 부각한다. COSC 공식 인증을 받은 자사 제작 칼리버 B20을 장착했으며, 나사 잠금 크라운이 있는 견고한 스틸 케이스로 200m 방수가 가능하다. 6백72만원. 문의 032-654-5454

몽블랑 1858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 수천 년 동안 얼어붙은 얼음 결정체를 사실적으로 담은 41mm 다이얼에 몽블랑의 섬세한 기술력으로 0.5mm의 얇은 두께를 실현했다. 다이빙 워치에 부합하는 ISO 6425 표준 인증을 받았으며 300m 방수 기능뿐 아니라 충격, 자기, 온도, 수압에 대한 저항성을 갖췄다. 4백17만원. 문의 1670-4810

IWC 아쿠아타이머 크로노그래프 직경 44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스톱 타임 및 누적 타임 측정이 가능하다. 3개의 카운터와 날짜 및 요일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음에도 슬레이트 다이얼 디자인이 깔끔한 느낌을 준다. 300m까지 방수 가능하며, 실수로 잠수 시간이 변경되는 것을 막아주는 세이프 다이브 시스템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44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9백40만원. 문의 1670-7363

제니스 데피 21 울트라블루 샌드 블라스트 기법으로 처리한 어두운 색의 매트 티타늄 소재 케이스와 오픈 다이얼을 통해 살짝 비치는 무브먼트의 푸른색이 조화를 이뤄 고급스러운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44mm 케이스 사이즈에 0.01초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가장 빠른 크로노그래프인 엘 프리메로21을 탑재해 높은 기술력을 자랑한다. 100m까지 방수 가능하다. 2천23만원. 문의 02-3479-6191

오메가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6000M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5.5MM 세계 최고 잠수 기록을 수립한 후 대중을 위한 특별한 컬렉션으로 제작한 모델이다. 실제 해양 조건에서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6,000m까지 방수 가능하다. 샌드 블라스트 처리한 그레이드 5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 지름 45.5mm로 브러싱 처리한 블랙 세라믹 베젤 링과 리퀴드메탈™ 다이빙 스케일을 적용해 프로 다이버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1천5백만원대. 문의 02-3467-8632

파네라이 섭머저블 쿼란타콰트로 지름 44mm, 두께 4.2mm의 케이스로 브러시드 스틸과 스케일을 적용한 카보테크™ 소재의 반시계 방향 회전 베젤을 매치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물속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블랙 다이얼에 야광 아워 마커 및 도트를 가미했으며,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9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가 자리해 다이버 워치의 필수 요소를 모두 충족시킨다. 물에서 활동하기 좋은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으며, 300m 방수를 지원한다. 1천1백만원대. 문의 1670-1936 에디터 **성정민**

The Women Who Inspire Us_14
김보희(Bohie Kim)

into the Mindscape in Jeju

예로부터 화가들은 자연의 순수한 빛이 주는 철학적 기쁨을 예찬하고 예술가의 상상력을 더해 영혼을 두드리는 그 생명체를 화폭에 담아냈다. 분명 생기가 느껴지지만 왠지 모르게 평온한 에너지를 조용히 뿜어내는 그림을 그리는 김보희에게 그 같은 감성과 영감, 환희를 선사하는 절대적 대상이자 안식처는 '제주'다. 우리네 아름다운 화산섬 제주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만 그녀에게 제주는 유달리 특별한 존재다.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도 주말이나 방학 때는 제주를 찾아 일상을 보내고 작업을 했다. 그렇게 '입도'한 지 거의 20년이 됐다. 2017년 정년을 맞이해서는 아예 제주로 이주했다. 그리고 내달 초 드디어 저지리에 있는 제주현대미술관에서 반세기 가까운 자신의 작업 세계를 아우르는 개인전을 가진다.

시원스러운 화면 위로 초록의 층위가 생명력 있게 세레나데를 펼치지만 결코 과하지 않은, 은은한 정기가 느껴지는 채색의 미학. 나무나 숲, 바다 등의 자연을 영감으로 삼는 김보희의 작업은 2~3m나 되는 대형 캔버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우선 당당한 스케일에 놀라고, 그와 거의 동시에 잔잔하면서도 힘 있는 색감과 녹색 식물이 코앞에 있는 듯 대담한 구도에 눈길을 고정하게 된다. 마치 자연이 아주 가깝고 당차게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분명 생기 있는 사물이 담겨 있는데도 초연한 추상화 같은 분위기도 난다. 큐레이터 황두가 도록 글에 썼듯, 이는 아마도 작가가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주시'가 아니라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 '정시'이기 때문인 것 같다. 단순히 관망하고 모방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맞추고 소통하며 교감하는 대상으로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김보희의 작업은 서양의 풍경화가 아니라 산수화라 명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동양화 물감으로 창조해내는 대형 캔버스 작업

현대미술에서 동양화, 서양화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김보희에게 동양화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기는 한다. 굳이 따지자면 동양화를 전공한 그녀는 동양화 물감만 써서 채색하는데, 종이가 아닌 대형 캔버스 작업을 주로 한다. 제주의 자연을 닮은 싱그러운 초록을 가장 사랑하고, 바다색도 '애정'한다. 종이와는 다른 느낌으로 캔버스 천에 스며든 물감이 오묘한 매력을 뿜어내고 추상적인 느낌에 워낙 스케일도 있다 보니 서양화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했다. "보통 캔버스는 젯소 칠이 되어 나와 미끈거리는 탓에 동양화 물감이 잘 안 묻어요. 그래서 직접 물감하고 아교, 호분 등을 섞어서 밑칠을 하죠. 그 위에 다시 동양화 물감으로 하면 잘 먹어요." 원래는 종이도 썼는데, 워낙 큰 작품을 하다 보니 자주 울거나 찢어졌고, 아크릴 같은 재료도 써봤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다. "(굳이 구분 지을 필요 없이) 순수 미술을 하는 거고, 평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동양화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차별적인 강점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역사와 재료를 기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 것부터 기본으로 익히고 나서 서양화든 뭐든 다른 걸 자유롭게 배우면 훨씬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커다란 화면에 투영해내는 '내면화된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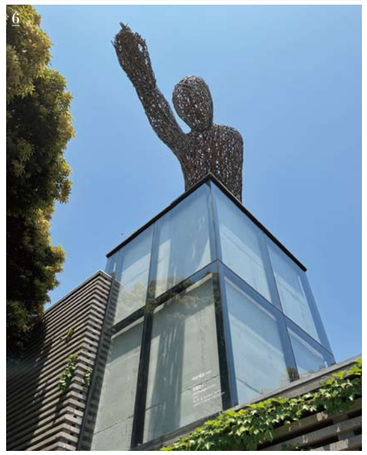
그렇다면 그토록 큼직큼직한 작업을 즐겨 하는 성향은 타고난 것일까? '원래부터 스케일이 컸냐'는 질문에 김보희 작가는 잠시 멈칫하면서 긍정의 웃음을 살짝 터뜨렸다. "(제가) 체격이나 키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걸 좋아해서 졸업전도 큰 작품을 했어요." 그러자 은퇴한 뒤 매니저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며 아내를 전폭 지원해주고 있는 그녀의 부군 조경환 씨가 거들었다. "(저희가) 1975년에 결혼을 해서 15평짜리 조그만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침실을 빼놓고 나머지 공간을 다 그림 그리는 데 쓰더라고요." 그는 김보희 작가의 커다란 졸업 작품을 보고 반했다고 한다. 체격이 아담한 그녀는 정말로 '통 큰' 스타일인지 거주 공간이 커짐에 따라 작품 사이즈도 늘려갔다. 젊은 시절 해외 근무를 하기도 했다는 그는 아내가 돈을 안 쓰고 모으는 스타일이라고 은근히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50평대로 이사 가니까 아예 방 2개를 터서 화실로 썼어요"라고도 덧붙였다. 결국 그는 2003~2004년께 제주도에 커다란 작업실을 둔 집을 완공해 아내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길이가 5m 정도인 약 45평의 제주 자택 화실에서 김보희 작가는 마음껏 대형 캔버스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빠져들었다는 제주의 푸름을 큰 화폭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담아냈다. 심지어 1백 호(130×162cm) 짜리 27점을 모은 어마어마한 작업('The Days')도 시도했다. 제주의 초록 숲과 여미지식물원 등에서 영감을 받아 4년에 걸쳐 그린 것이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대작 속 회화적 요소들이 매우 생생한데도 위압적이거나 소란스럽지 않다. 그림 속 자연이 작가가 친밀하게 교감하면서 탄생한 결과물인 동시에 마음속 독백이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작품 외부에 그녀 내면의 평온함과 초연함, 냉정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론이 꽤 설득력 있게 와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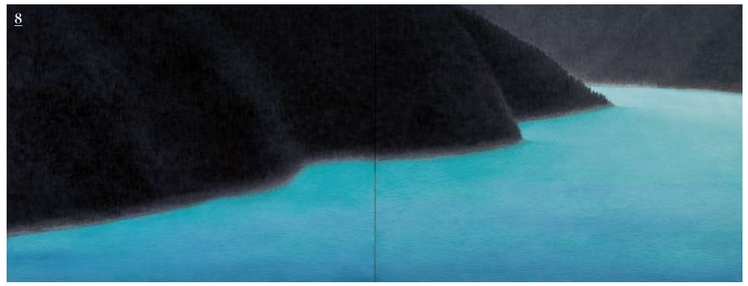
1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김보희 작가의 작업실 풍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은퇴하고 제주로 이주해 작업하고 있는 김보희 작가의 대표작 '투워즈(Towards)' 시리즈 신작이다. 오는 8월 9일 시작되는 제주현대미술관 개인전에서 선보일 대작으로 천장 높이가 5m나 되는 작업실 벽면을 넘게 채운다.(391×648cm overall) **2** 김보희 작가 곁에는 반려견인 검은색 골든레트리버 '레오'가 앉아 있다(작품에도 등장한다). **3** 동양화 물감과 붓 등 여러 재료와 도구가 모여 있는 김보희 작가의 작업실 내부. **4** 김보희 작가의 회화 작품이 걸려 있는 제주 자택 거실. **5** 국립현대미술관(MMCA) 과천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의 천이〉에서 선보인 김보희 작가의 작품 '지화상'(2020). 캔버스에 채색, 162×130cm, 작가 소장. 전시는 오는 9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6** 오는 8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김보희 작가의 개인전이 펼쳐질 저지리 제주현대미술관의 외관. **7** 김보희, 'Towards'(2022), Color on Canvas, 162×130cm **8** 김보희, 'Untitled'(2005), Color on Korean Paper, 130×320cm overall, 2 pieces. 7, 8 Courtesy the artist and Gallery Baton ※ 1~6 이미지 Photo by SY Ko

오는 8월 개최되는 김보희 개인전이 기대되는 이유

'김보희 교수의 자연에 대한 탐구는 교육 현장을 떠나면서 더욱 집중될 것이다.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기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의 모교이자 긴 교직 생활을 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아트 센터에서 2017년 여름에 열린 전시에서 오광수 미술평론가는 이렇게 축복의 글을 선사했다. 그의 기대와 바람처럼 김보희 작가는 사시사철 생명력이 있고, 겨울에도 '초록'이 존재하는 제주로 완전히 이주하면서 작업 이력의 새 장을 써나가고 있다. 그녀가 좋아하는 야자나무를 비롯해 초록 식물로 가득한 자택의 정원에 둘러싸여, 제주와 함께하는 자신의 예술 여정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묵묵히 제 갈 길을 걷던 작가에게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열렸다. 2020년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초대전 〈Towards〉는 싱그러운 야자수와 용설란, 비취색 바다 등으로 수놓은 김보희의 '낙원'을 더 많은 대중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중순 부산에서 열린 아트 페어 아트 부산 2022에서도 전시장 여러 곳을 대형 작품으로 장식하는 특별전에서 가로 길이가 5m가 넘는 김보희의 회화(194×520cm) '투워즈(Towards)'(2021)를 선보였다. 지난봄 내내(4월 29일부터 6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이 강남구청, CGV와 더불어 진행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도 김보희의 작품이 낙점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은행을 통해 소장한 작품을 미술관 바깥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로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760m 구간에 '투워즈' 시리즈를 포함한 김보희의 회화 25점을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한 영상을 내보내며 '라이트 쇼'를 펼쳤다.

그리고 이번 여름, 이제 70대에 접어든 김보희 화백의 예술 여정에 방점을 찍을 만한 전시가 기다리고 있다. 제주 저지리의 아름다운 숲속에 자리한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오는 8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김보희 개인전이 열릴 예정이다(내년 6월엔 갤러리바톤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다). 제주도에 터전을 마련한 지 20년이 된 그녀에게 이 전시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전시를 위해 대형 캔버스 작품도 따로 제작했다. 필자가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을 때 벽면을 채운 이 작품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작품에 등장한, 김보희 작가와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견 '레오'의 근사한 실물도 함께 접해 더 기분 좋은 방문이었다. "제주현대미술관 전시장에 7~8m 되는 벽면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보면서 (이 작업을) 마음먹고 한 거예요." 작업실에서의 감상도 의미 있었지만 공간감이 확실히 다른 전시장에 걸렸을 때의 느낌은 또 다르리라. 특유의 싱그러운 녹음이 더 매력적으로 짙어질 한여름, 제주를 한번 더 찾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다. 글 고성연





Golden Time

드레시한 매력과 캐주얼한 매력이 공존해서일까?
최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풀 골드 케이스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불가리 옥토 로마** 대담하고 견고한 분위기를 풍기는 팔각 케이스가 특징인 옥토 로마. 지금 가장 트렌디한 사이즈인 지름 41mm 케이스로 선보이는 버전으로, 로즈 골드 케이스와 다크 브라운 래커 다이얼의 조합이 우아한 분위기를 풍긴다. 컬렉션의 상징적인 메캐니컬 매뉴팩처 무브먼트로 BVL 191 솔로템포 칼리버로 구동하며, 브라운 앨리게이터 스트랩으로 품격 있게 마무리했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6105-2120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9MM 원형 다이얼, 반달 모양 케이스 상단과 하단 패싯, 케이스 측면의 클러 장식으로 오메가의 클래식한 품격을 계승하는 제품. 변형된 일자 인덱스를 올린 깔끔한 화이트 다이얼과 베젤에 로마숫자를 새긴 18K 옐로 골드 케이스가 모던하고 클래식한 감성을 이어간다. 항자성을 인증받은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1로 움직이며, 6시 방향에 날짜창을 올린 실용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제품. 2천6백만원대. 문의 02-6905-3301

IWC 인제니어 크로노그래프 지름 42.3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시, 분, 초 단위의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담아낸 피스. 양 방향 폴(pawl) 와인딩과 4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자체 제작 69375 칼리버에서 동력을 얻으며, 타키미터 눈금과 함께 1,000m 래퍼런스 구간의 주행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120m 방수 기능도 갖추었다. 고혹적인 분위기를 지닌 다크 그레이 선레이 다이얼에 블랙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특유의 지적이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이어간다. 2천4백만원. 문의 1670-7363

로저드뷔 엑스칼리버 오토매틱 스켈레톤 골든 오픈워크 타입으로 로저드뷔의 기술적 정교함과 구조적인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제품. 지름 42mm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담아낸 모던하고 강렬한 개성의 오토매틱 스켈레톤 칼리버 RD820SQ의 움직임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 6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30m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 1억4백만원. 문의 02-3479-1403

위블로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지름 42mm의 깔끔하고 절제된 18K 옐로 골드 케이스 실루엣에 특유의 H자 형태 티타늄 스크루로 장식해 아이코닉한 면모를 드러내는 제품. 무브먼트는 시간당 2만8천8백회 진동하며, 완벽에 가까운 정확한 움직임의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MHUB1153을 적용했다. 블랙 스트럭처 라인 러버 스트랩을 매치해 모던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4천1백38만원. 문의 02-2118-6208

파네라이 루미노르 퍼페추얼 캘린더 골드테크™ 지름 44m 브러시드 골드테크™를 적용한 버전. KIF® 충격 방지 장치로 보다 정확하고 완벽에 가까운 움직임을 구사하는 오토매틱 기계식 인하우스 칼리버 P.4100으로 구동하는 모델. 일, 월, 연, 그리고 윤년을 계산하는 퍼페추얼 캘린더로 GMT 기능까지 갖췄다. 슈퍼루미노바®를 입힌 인덱스로 어둠 속에서도 명확한 가시성을 발하며,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을, 9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와 24시간 인디케이터를 올려 실용적으로 마무리했다. 5천6백만원대. 문의 1670-1936

바쉐론 콘스탄틴 피프티식스 데이-데이트 1956년 제작한 아카이브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레트로 컨템퍼러리 스타일의 남성용 시계. 칼리버는 초 단위로 정확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네바 홀마크 인증의 무브먼트 2474 SC/2를 사용했다. 말끔한 화이트 다이얼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와 데이 & 데이트 인디케이터, 스몰 세컨즈를 올렸다. 오픈워크 케이스 백을 통해 말테 크로스에서 영감을 얻은 우아한 22K 골드 로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5천3백50만원. 문의 1670-4606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신정임**

True Color

신비로운 에너지를 품은 컬러 스톤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까르띠에 1895 솔리테어** 1.53캐럿 오벌 컷 루비를 중심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다미아니 마르게리타 화이트 골드 사파이어 링 만개한 3송이의 꽃을 주얼리에 그려낸 제품. 화이트 골드 플레이트에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장식해 우아한 품격을 자아낸다. 가격 미정. 문의 02-3213-2141

티파니 옐로우 다이아몬드 솔리스트 링 희귀한 옐로 다이아몬드를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피스.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하고, 2줄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둘러 화려한 멋을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불가리 세르펜티 세두토리 더블 헤드 링 풍요, 지혜, 불멸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을 모티브로 한 매혹적인 컬렉션. 뱀의 눈을 장식한 에메랄드 원석과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투 헤드 링 1천6백만원대. 문의 02-6105-2120

쇼메 조세핀 아그레뜨 링 우아한 왕관 모티브로 황후의 품격을 표현한 주얼리. 매혹적인 페어 컷 로돌라이트 가닛을 세팅한 버전의 아그레뜨 링 9백93만원. 문의 02-3442-3359

피아제 포제션 링 중앙에서 회전하는 밴드 모티브가 모던하고 유쾌한 디자인 코드를 그리는 주얼리 피스. 46개의 브릴리언트 컷 사파이어를 파베 세팅했으며,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시그너처 포인트를 이룬다. 5백85만원. 문의 1668-1874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신정임**

서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천연 라피아 소재로 제작했으며, 라이트 블루 스트라이프 패턴이 시원한 느낌을 주고, 큰 사이즈로 뛰어난 수납력을 자랑한다. 2백76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20

(위부터 차례대로) 고급스러운 우븐 기법으로 탄생한 니트 디테일이 돋보이는 백으로, 패브릭 인서트와 컬러풀한 프린지 디테일에서 계절감이 느껴지는 T 타임리스 숄더백 4백6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독특한 바스켓 형태의 백 디자인이 돋보이며, 레더 핸들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위커 소재의 토트백 2백9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Summer Field

여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을 만나 더욱 빛나는 라탄, 라피아 소재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크로스 보디로 착용 가능해 캐주얼한 무드를 형성하는 라피아 소재의 백. 블랙 로고 포인트가 인상적이다. 가격 미정 **생 로랑 바이 안토니 바카렐로.** 문의 02-6905-3924 단단하게 모양이 잡힌 스퀘어 바스켓 백으로, 라피아 소재에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편의성을 더했다. 휴양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웨어러블한 연출이 가능하다. 94만원 **로에베.** 문의 02-3479-1785

활용도 높은 미디엄 사이즈의 라피아 소재 백으로, 화이트 로고를 심플하게 인그레이빙해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준다. 스트랩이 내장되어 있어 크로스 보디 형태로도 연출 가능한 G-TOTE 미디엄 라피아 백 1백73만원 **지방시.** 문의 02-546-2790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신정임**

DAZZLING DESERT

캘리포니아의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뜨거운 태양의 열기. 2022 핫 서머 룩.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저지 소재의 브라운 컬러 패턴 수영복, 카프 레더 소재의 브라운 컬러 스트랩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플루이드 니트 소재의 테라코타 컬러 플리티드 미니스커트 1백48만5천원 **지방시.** 골드 이어링 14만원 **아니.**

플라워 패턴 톱과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본봉.** 골드 빅 이어링
12만5천원 **1064스튜디오.**

자카드 패턴의 니트 보디수트
35만8천원, 자카드 패턴의 크롭트
카디건 36만8천원 모두 **렉토.** 만다린
레드 컬러 이어링 9만8천원 **아니.**

블랙 & 화이트 패턴의 글리터드 튈 소재 재킷,
네이비 컬러의 비스코스 믹스드 파이버 소재
톱과 쇼츠 모두 가격 미정 **샤넬.** 그레이스
멀티 네크리스 28만원 **러브 미 몬스터.**
진주 골드 메탈 네크리스 17만2천원 **아니.**

삼각형 패턴이 물결 모양으로
프린트된 크링클 나일론 소재의
수영복 75만원, 패딩 처리한 테크니컬
패브릭 소재의 샌들 1백24만원
보테가 베네타. 화이트 컬러의
플리츠스커트 가격 미정 **포츠 1961.**

핑크 컬러의 원숄더 셔링 드레스
가격 미정 **셀린느.** 가죽 소재의
글래디에이터 메탈 버클 샌들
2백85만원 **로저 비비에.**

플로럴 프린트 파자마 셔츠
3백90만원, 플로럴 프린트 이너 톱
1백5만원, 플로럴 프린트 파자마 쇼츠
2백10만원 모두 **발렌티노.**

실크 소재의 멀티컬러 드레스
3백39만원 **펜디.**

코튼 소재의 프린트 셔츠,
저지 소재의 엘로 컬러 수영복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헤어 & 메이크업 **Jenny Oh**
모델 **강소영**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르메스 02-542-6622
샤넬 080-805-9628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펜디 02-514-0652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셀린느 02-549-6631
발렌티노 02-2051-4653
지방시 02-546-2790
포츠 1961 Ports1961.com
아니 www.ahni.co.kr
본봉 www.b-o-n-b-o-m.com
러브 미 몬스터 02-6082-3331
1064스튜디오 070-7740-1064
렉토 1522-7720

Easy Breez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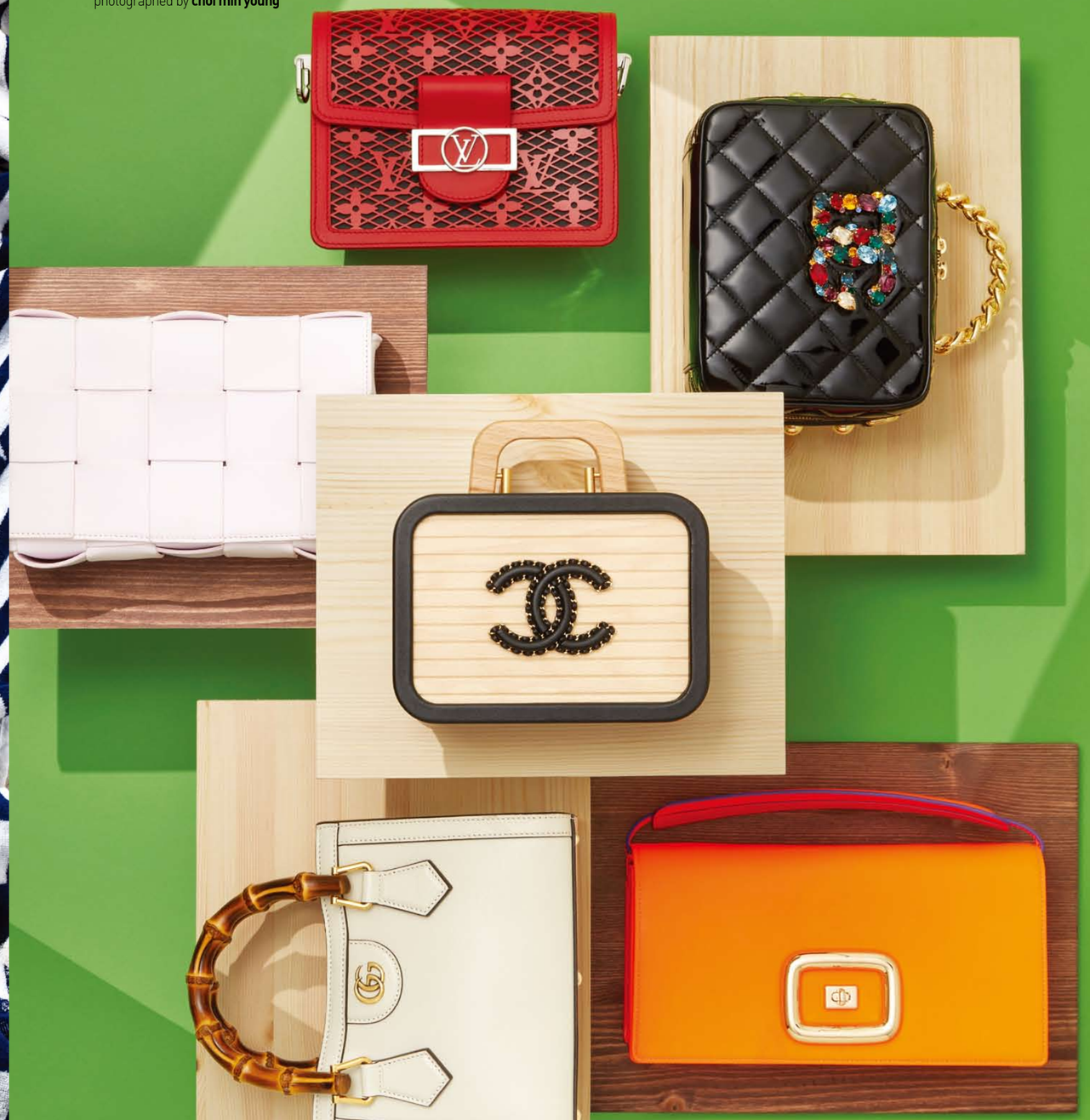
휴양지에서 여유롭고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해줄
서머 슬라이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임브로이더리를 더한 블랙 트림이 돋보이는 다올 리조트 버킷 햇 가격 미정 **다올.** 문의 02-3480-0104. 핑크 캣 아이 선글라스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체인으로 장식한 화이트 램 스킨 소재 도트 플랫 샌들 1백47만5천원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82. 조절 가능한 벨크로 스트랩이 편안하고 실용적인 엘로 러버 솔 스펀지 슬라이드 88만원 **아디다스 X 구찌.** 문의 02-3452-1521. 컷아웃 디테일로 DG 크로스를 강조한 페일 핑크 카프 스킨 슬라이드 84만원 **돌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로만 스터드를 통통 튀는 분위기로 재해석한 제품. 가볍고 부드러운 PVC 소재로 제작한 터틀 슬라이드 70만원대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15-4653. 컬러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램 스킨 뮬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스트라이프 패턴과 하우스 시그너처 모티브의 조합이 돋보이는 코튼 소재 LV 그래피컬 비치 타월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부드러운 블루 양털을 덧댄 다올 쉐무아 슬라이드 가격 미정 **다올.** 문의 02-3480-0104. 해변에서의 유쾌한 플레이 타임을 선사해 줄 카본 소재 프리스비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이주이**

아시스텐트 **신정일**

charming edge

똑 떨어지는 스퀘어 앵글로 룩에 임팩트를 주는 각진 백의 매력.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렬한 레드 컬러의 송아지가죽 소재를 재단해 시그너처 모노그램을 레이스 형태로 구현해 독특하면서 개성 있는 연출을 도와줄 미니 도핀 백 5백70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카프 스킨 소재 엠보싱 디테일 백으로 골드 체인 톱 핸들과 컬러 스티치 로고로 임팩트를 주며 심플한 룩에 포인트로 연출 가능하다. 2백65만원 **돌체앤가바나.** 문의 02-6953-4115. 우드 소재가 주는 독특한 매력이 인상적인 백으로 로고 장식과 블랙 카프 스킨으로 만든 프레임이 클래식함을 더한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각진 백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형태감의 비브 쇼크 백. 눈에 띄는 강렬한 네온 오렌지 컬러와 메탈 주얼 잠금장치로 주얼리를 연출한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3백98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옛 할리우드의 화려한 타임리스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적인 디아애나 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이템으로 뱀부 소재 톱 핸들과 GG 로고가 돋보이는 미니 토트백 3백70만원대 **구찌.** 문의 02-3452-1921. 부드러운 램 스킨으로 인트레치아토 위빙을 완성한 시그너처 카세트 백으로 은은한 파스텔 라벤더 컬러가 매력적이다. 2백92만원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82 에디터 **성정민**

Her time, Her choice

올해 6월 오메가는 글로벌 여성 앰배서더들과 함께한 캠페인 '마이 초이스(My Choice)'를 소개하며, 오메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진취적이고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사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선택의 자유는 혼란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멋진 일이며, 제가 지닌 자유로운 면을 사랑합니다." _by 조이 크래비츠

2

1969년 인류가 처음 달에 착륙한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1932년부터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하며 항공, 스포츠, 해양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계로서 쌓은 오메가의 입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단단한 정체성 위에 쌓여가는 크고 작은 행보, 철학과 비전을 둘러싼 오메가의 스토리는 꽤 흥미롭다. 오메가는 글로벌 여성 앰배서더들과 함께한 캠페인 '마이 초이스'를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철학과 비전, 그리고 가치를 향유하며 매혹적인 스토리를 전하기에 나섰다.

앰배서더는 브랜드의 얼굴이다. 오메가는 특히 앰배서더와 단순한 상업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으로서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강조한다. 실제로 브랜드와 인연을 맺은 앰배서더는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 그리고 오랜 시간을 공유하며 홍보대사 이상의 인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계를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우스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며, 서로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술이 진보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계식 워치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 또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이번 캠페인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일까? 우선 이는 시계 시장에서 여성의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 엿볼 수 있는 계기다. 앞서 오메가는 특히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20세기 초반, 여성용 타임피스에 관한 커다란 혁신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동참했으며, 레이디 매틱 등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로노미터 인증 로터를 더한 오토매틱 칼리버를 장착한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다. 간혹 어떤 경우에는 남성 시계 제작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장인 기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아카이브의 한 챕터를 이루는 플라워 주얼리 시크릿 워치 등 실험적인 시도와 컬러, 창의성이 어우러진 디자인이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것처럼. 이후 1990년대 신디 크로퍼드가 오메가의 홍보대사로 처음 합류하며 여성 라인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05년에는 니콜 키드먼을 통해 변화하는 여성의 애티튜드와 취향에 발맞춰왔다.

또 오메가는 〈Her Time〉이라는 전시를 통해 밀라노, 파리, 뉴욕을 비롯한 도시에서 전 세계 여성들의 스타일과 히스토리, 애티튜드 등을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여성 글로벌 앰배서더들과 함께한 '마이 초이스' 캠페인에서 오메가가 시대를 관통하며 이어온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육해공을 막론한 여러 분야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다진 것처럼, 다양한 배경과 분야에서 본인만의 길을 확립해온 여성들과 '개척 정신'을 공통분모 삼아 각자의 이야기를 전한다. 캠페인에는 15년 이상 오메가의 홍보대사로 활약해온 인물이자, 오스카와 아카데미 등 권위 있는 영화상에서 다수 수상하며 배우로서 영향력을 키워가며,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 니콜 키드먼(Nicole Kidman), 강한 개성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조이 크래비츠(Zoe Kravitz), 25년 이상 오메가의 앰배서더로 활약한 엄마 신디 크로퍼드에 이어 타고난 에너지와 스타일로 패션계를 사로잡은 모델 카이아 거버(Kaia Gerber), 범죄 스릴러에서 로맨틱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여러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저우동위(Dongyu Zhou), 그리고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다채로운 영역에서 독보적인 커리어를 구축하고 있는 한소희(So-hee Han) 등이 참여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우아한 여성상을 제시한다. 각자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는 시계를 착용하고 카메라 앞에 선 그녀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피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브랜드와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흑백사진과 영상 시리즈에서 오메가에 영감을 불어넣어준 여성 홍보대사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며,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자신들의 필모그래피를 말한다. 이를 통해 비단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스타일리시하고 우아한 컨스텔레이션처럼, 외형뿐 아니라 행동과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치, 즉 각자의 삶에서 추구하는 탁월함, 자신에 대한 믿음 등 남녀 공동의 가치를 전한다.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아루이**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만 무척 즐거운 일이에요." _by 카이아 거버

4

8

7

"다채로운 장르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항상 저 자신과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죠." _by 한소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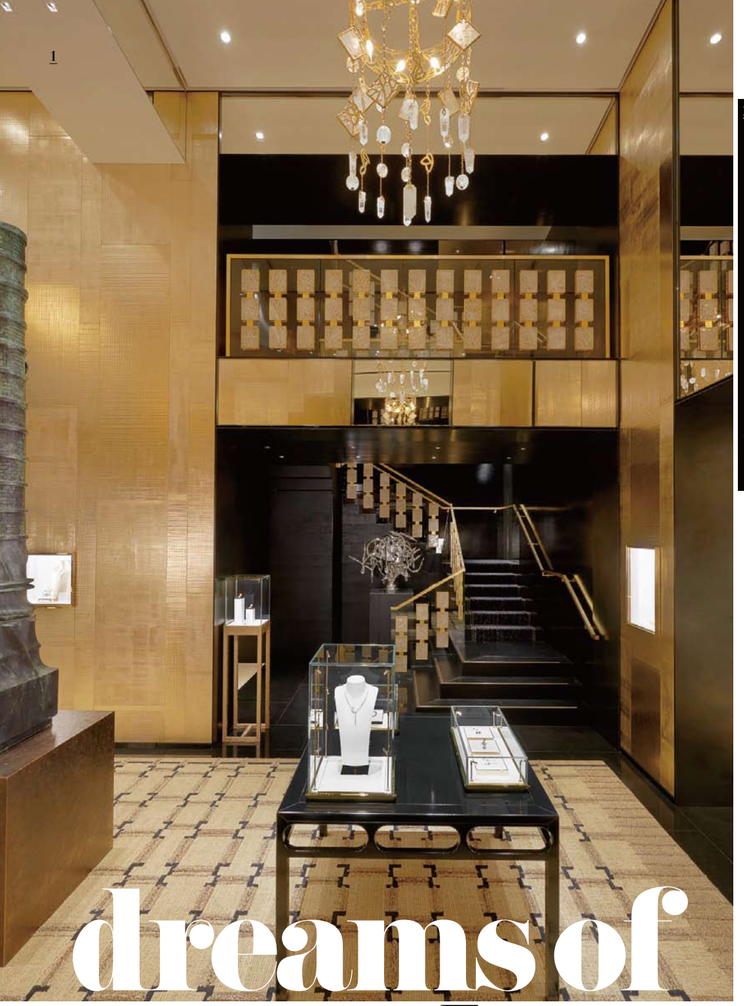
"저는 더 강해지기도 하고, 유쾌해지기도 하며, 다양한 기분을 느껴요. 그렇지만 외모, 시대, 스타일 등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제가 있습니다." _by 니콜 키드먼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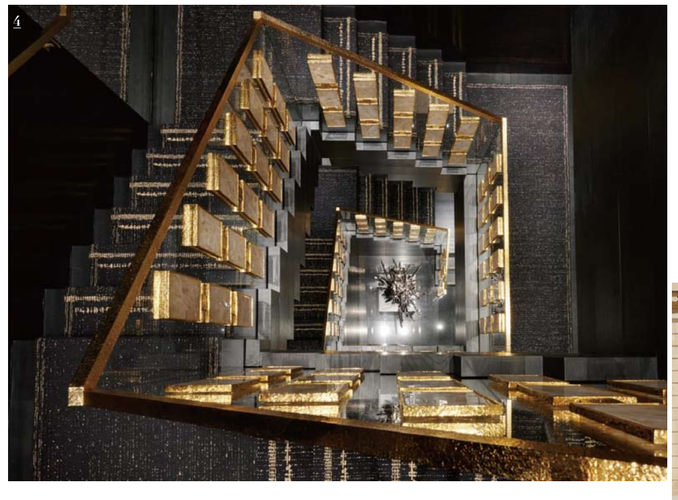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세요." _by 저우동위

10



dreams of 18 vendôme

1997년 가브리엘 샤넬이 걸었던 거리, 파리 방돔 광장 18번지에 샤넬 부티크가 들어섰다. 이로써 이 거리는 단숨에 샤넬의 상징이자 주얼리와 워치메이킹의 무대가 되었다. 샤넬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또 한번 재현한다. 25년 만에 1932년 샤넬 여사가 만든 유일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비쥬 드 디아망'의 탄생 90년을 기념해 다시 문을 여는 것. 이 오프닝은 샤넬에 있어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1 블랙 래커에 금빛 부조 모티브로 라이닝을 넣은 디테일이 돋보이는 1층 내부. **2** 3층에 전시된 55.55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N°5 하이주얼리 네크리스. **3** 창문으로 보이는 방돔 광장의 모습. **4** 미로처럼 미스터리한 느낌을 주는 계단. **5** 외부에서 바라본 샤넬 부티크의 모습.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방돔 광장 18번지는 가장 트렌디하면서도 깊은 전통을 지닌 패션 하우스들의 무대가 되었다. 그 중심에 샤넬 부티크가 있다. 이 건물은 숙련된 장인이 귀금속과 진귀한 원석에 생명을 불어넣은, 가브리엘 샤넬의 정신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다. 지난 5월 18일 이 부티크는 미국 유명 건축가 피터 마리노(Peter Marino)의 1년에 걸친 작업으로 3개 층에 걸쳐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마드모아젤 샤넬의 세계에 대한 현대적 비전을 보여준다.

투명한 벽을 세운 현관은 미치 미로처럼 미스터리한 느낌으로, 뒤로 이어지는 골드, 베이지, 브라운 래커 패널로 구성한 공간의 분위기를 예고한다. 유리 벽을 통해 반짝이는 하이 주얼리의 광채는 마치 영화 〈로마의 휴일〉 속 한 장면처럼 방문객들의 눈길을 자연스럽게 사로잡는다. 부티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망치로 두들긴 청동으로 만든 투각 스크린이 위치해 방돔 광장을 향해 열리는 유리 진열장을 가리는 동시에 공간을 여러 살롱으로 나눈다. 블랙 래커와 금빛 부조 모티브로 라이닝을 넣은 벽면은 캉봉가 31번지의 아파트와 코로만델 병풍, 골드 컬러의 삼베 패브릭으로 감싼 벽을 연상시킨다. 인테리어는 여러 시대와 스타일을 자유롭게 연결해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테이블과 칭틀, 루이 15세 집무실의 장식품, 구센의 샹들리에 등을 활용해 금동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중앙의 도금한 벽면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아트리움에는 요한 크레텐(Johan Creten)의 '라 본(La Borne)'이 자리한다. 높이가 약 3m에 달하는 청동 작품으로 방돔 광장의 기둥에 바치는 장엄한 비유적 찬사다. 위로는 햇빛을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이 있어 새로 마련된 파인 워치메이킹 컬렉션 전용 층을 살짝 엿볼 수 있다.

뒤쪽 네 번째 살롱에서는 부티크를 좀 더 사적하게 조망할 수 있다. 크리스털 조각이 프레임을 둘러싼 구센의 거울에서 잉그리드 도나(Ingrid Donat)의 마카 커피 테이블을 비롯한 가구의 골드와 브론즈 컬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살롱을 나서면 오른쪽에 프랑수아-자비에 랄란(François-Xavier Lalanne)의 '와피티(Wapiti)'가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서 있다. 엘리베이터의 내벽은 바이올린이 있는 정물(Still Life with a Violin)'(1912), '앉아서 신문을 읽는 남자(Seated Man Reading a Newspaper)'(1912), '우산을 들고 일기를 읽는 남자(Man with an Umbrella Reading A Journal)'(1914) 등 피카소의 석판화 3점으로 장식되어 있다.

2층에서는 세 곳의 난간에서 부티크의 모습과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3개의 메인 창 너머 흘러 들어온 방돔 광장의 빛을 받은 파인 워치메이킹 제품들의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전반적으로 화이트 또는 블랙 래커로 칠한 벽과 테이블로 모던한 느낌을 자아내며, 골드로 된 의자와 진열 캐비닛이 포인트를 더한다. 프라이빗 살롱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 방돔 기둥의 절경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벽에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샤넬 여사의 자화상인 빅 뮤니츠(Vik Muniz)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코코(Coco in Diamonds)'를 감상할 수 있다. 거울과 샤넬의 상징인 골드 트위드로 라이닝을 넣은 벽은 24K 금박, 우드, 제스모나이트(Jesmonite)로 만든 소피 코리돈(Sophie Corydon)의 조각으로 장식했다. 루이 15세의 책상, 가리도(Garrido)의 도금 테이블, 자개 장식을 넣은 중국의 도자기 램프가 앙상블을 완성한다. 부티크 3층의 계단 꼭대기에는 아티스트 안토니오즈(Anthonioz)의 금박 벤치가 사색의 시간을 선사한다. 금고같이 이어지는 통로에는 샤넬 소장품 컬렉션의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가 진열되어 있으며, 55.55캐럿의 커스텀 컷 DFL Type IIa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N°5 네크리스를 볼 수 있다. 부티크는 전반적으로 샤넬의 상징적인 컬러인 베이지, 화이트, 블랙, 골드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절제된 선과 소재를 적용해 은은한 화려함을 연출했다. 트위드 패턴을 연상시키는 카펫과 러그 등 일부 작품은 샤넬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건물에 더욱 편안하고 따뜻하며 친밀한 느낌을 더한다. 다른 아트피스들은 베이지 골드나 금동 같은 오브제와 함께 배치해 샤넬 주얼리 세계에 경의를 표한다. 새 부티크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샤넬의 인하우스 조향사 올리비에 폴쥬(Olivier Polge)는 아이리스의 우아함과 앰버의 강렬한 노트가 어우러진 특별한 향수를 제작했다. 샤넬의 아이코닉한 주소인 방돔 광장 18번지는 1932년 샤넬 여사가 만든 유일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비쥬 드 디아망(Bijoux de Diamants)' 탄생 90년을 기념하며 다시 문을 연다. 에디터 **성장민**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스텔 톤의 잔잔한 색감이 특징인 블루 컬러 글라스 라지 텀블러 세트(2ea) 4만원 **덴비.** 문의 1644-6105. 싱그러운 에메랄드빛 바디를 연상시키는 터퀘이즈 화병 6만원 **비토시 by 비아커.** 문의 02-543-1270. 커팅이 화려한 블루 컬러 생-루이 토미 컬렉션 하이볼 잔 5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모던한 매력을 풍기는 모니크 샴페인 글라스 14만3천원 **아스티에 드 빌라트.** 문의 02-793-7098. 싱그러운 오렌지빛 와인 잔 3만원 **이 첸도르프 by 비아커.** 문의 02-543-1270. 파스텔 톤의 옐로 그러데이션이 돋보이는 컬러 글라스 스몰 텀블러 세트(2ea) 3만7천원 **덴비.** 문의 1644-6105. 버블 모양 손잡이가 유쾌한 감성의 생-루이 버블 컬렉션 와인 잔 4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은은한 올리브 그린 색감을 담아낸 플로우 글라스 옷 풋 5만원 **홈메가드 by 이노메싸.** 문의 02-3463-7752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성장민**

Be bright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여름 테이블을 위한 형형색색의 글라스웨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Water Splash

올라간 피부 온도를 낮추고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켜줄 가벼운 여름 수분 크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하이드라라이프 프레쉬 소르베 크림** 2배 더 농축된 히알루론산과 디올 가든에서 재배한 말로우 콤플렉스, 자연 유래 성분을 담아 완성한 포뮬러로 어떤 피부 타입이든 상관없이 피부를 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해준다. 50ml 10만8천원대. 문의 080-342-9500

겔랑 아베이 로얄 인텐스 리페어 유쓰 오일 인 밤 습기, 더위 같은 기온 변화와 과도한 마찰 자극에 약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크림. 95% 자연 유래 성분의 산뜻한 텍스처가 가볍게 녹아들어 약해진 피부를 케어한다. 80ml 33만6천원대. 문의 080-343-9500

랑콤 이드라젠 안티-스트레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화이트 재스민과 프랑스산 장미 추출물을 가득 함유한 수분 크림이다. 특허 받은 식물성 복합체가 세포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며, 꽃잎 성분이 피부를 즉각 진정시켜 하루 종일 끈적임 없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준다. 50ml 8만9천원대. 문의 080-022-3332

에스티 로더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유스 파워 크림 실키하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빠르게 스며들어 끈적임 없이 촉촉함만 남기며 피부에 편안함을 선사한다. 히비스커스-8 추출물이 피부 진정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며, 콜라겐-부스팅 테크놀로지로 지치고 늘어진 여름철 피부에 강력한 힘을 부여한다. 50ml 15만원대. 문의 02-6971-3212

샤넬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크림 까멜리아 마이크로 버블 속 순수한 상태로 유지된 활성 성분이 젤 타입과 만나 바르는 즉시 풍부하고 신선한 수분감을 선사한다. 피부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물처럼 상쾌하고 가벼운 제형이 여름철 습하고 뜨거운 피부에 프레시함을 선사한다. 50g 12만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록시땅 아쿠아 레오티에 울트라 서스트 퀀치 크림 프로방스 청정 마을 레오티에에서 끌어올린 샘물을 담은 크림으로, 프랑스 온천수보다 10배 많은 칼슘을 함유했다. 그 때문에 피부 수분 장벽을 강화해줄 뿐 아니라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해 건강하고 촉촉하게 가꿔준다. 50ml 4만2천원. 문의 02-2054-0500

프레쉬 로즈 딥 하이드레이션 페이스 크림 강력한 수분을 전달하는 정제된 다마스크 로즈 추출물이 피부 깊이 수분을 전달하며, 히알루론산까지 함유해 다각적으로 피부에 부족한 수분을 채우고 케어한다. 젤 타입의 로즈 워터 텍스처가 피부에 닿는 순간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선사한다. 50ml 5만9천원대. 문의 02-3479-6202

아베다 보태니컬 키네틱스™ 하이드레이팅 워터 젤 크림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 센텔라아시아티카, 식물성 히알루론산 성분을 함유해 풍부한 보습감을 선사하며 피붓결을 편안하게 감싸 본연의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가꿔준다. 바르자마자 청량감이 느껴지는 텍스처가 일품. 50ml 5만6천원대. 문의 02-3440-2905 에디터 **성정민**

※ 장라윤(40대 건성), 성정민(30대 민감성), 이주이(20대 지·복합성)

editor's Pick

덜 자극적이고 더 건강한 성분으로 누리는 스킨케어 & 메이크업. photographed by **jeong j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루쥬 알뤼르 렉스트레 844 브라이트 핑크** 여는 방식부터 샤넬다운 제품 패키지가 특징. 똑딱 하면 나오는 모던하고 상징적인 케이스가 매력적이다. 너무 번들거리지 않을 정도의 촉촉함과 바르자마자 빠르게 픽싱되는 사용감에 감탄. 은은한 펄감으로 입술을 더욱 반짝이고 볼륨감 있어 보이게 만든다. 2g 6만4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_*by 에디터 성정민*

버버리 키세스 매트 립 패트 TB 오렌지 No.17 색 원료 함량이 높아 강렬한 매트 컬러로 발색되지만 히알루론산을 풍부하게 함유해 편안하게 발린다. 특히 17번 컬러는 오렌지를 살짝 더한 레드 컬러로 과하지 않은 다홍빛이 돈다. 진한 컬러가 마음에 걸린다면 손가락으로 입술을 톡톡 두드리며 소량만 바르는 것을 권한다. 3.3g 5만2천원. 문의 080-850-0708_*by 에디터 장라윤*

딥티크 일리오 오 드 뚜왈렛 그리스어로 태양을 의미하는 '일리오(ilios)'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지중해 연안을 상징하는 백년초 열매와 베르가모트, 아이리스, 재스민 향을 담았다. 싱그러운 꽃과 과일나무 향 덕분에 눈을 감으면 파란 바다, 하얀 파도, 쨍쨍한 햇볕이 가득한 살굿빛 모래사장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다. 100ml 19만9천원. 문의 02-3446-7494_*by 에디터 장라윤*

라보라토리오 올파티보 리오네 퍼퓸 코롱 레몬과 진저, 오렌지 잎이 어우러진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의 시트러스 향수다. 싱그러운 레몬나무가 즐비한 아말피 해변에서 즐기는 꿀 같은 휴가를 상기시키는 향. 산뜻한 코롱 타입이라 리프레시하고 싶을 때마다 뿌리기에도 좋다. 100ml 15만2천원. 문의 080-990-8989_*by 에디터 이주이*

이든미네랄 미네랄 클렌징 무스 지성인 데다 민감성인 피부 타입 때문에 에디터는 유독 클렌징 아이템을 고르는 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우선 클렌징의 기본에 충실하되, 저자극에 세안 후에도 땅김이 없을 것.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주는 게 바로 이 비건 클렌저다. 쫀쫀한 거품을 만들어주는 무스 타입으로 메이크업은 물론 시간마다 덧바른 선크림까지 말끔하게 지워준다! 150ml 3만2천원. 문의 02-6954-0469_*by 에디터 이주이*

데코르테 화이트로지스트 브라이트닝 코렉팅 세럼 위드 코직 애씨드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고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화이트닝 제품은 사용에 조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품은 코직산이 멜라닌을 케어해 기미, 잡티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줘 피부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라이트한 텍스처로 여름에 사용하기에도 좋다. 60ml 21만원대. 문의 080-568-3111_*by 에디터 성정민*

디올 백스테이지 아이팔레트 #007 코랄 뉴트럴 아이 메이크업을 위한 프라이머부터 매트, 펄 혹은 메탈릭 피니싱 컬러 섀도, 그리고 하이라이터까지 아우르는 제품. 선명한 발색력은 물론 부드러운 발림성부터 갈라짐 없이 연출되는 오랜 지속력도 만족스럽다. 섬세한 톤 조절로 구성한 컬러 팔레트는 쿨 톤부터 웜 톤까지 다양한 피부톤을 커버한다. 10g 7만1천원대.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이주이*

뽀아레 로브 에뮐씨옹 향이 강한 뷰티 제품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무렵, 부드럽고 크리미한 텍스처의 가벼운 에멀션을 만났다. 스위트 아몬드와 호호바 씨 오일을 함유했기 때문에 극건성임에도 오후까지 땅김 없이 적당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50ml 16만5천원. 문의 02-310-5025_*by 에디터 장라윤*

마예트 리프레싱 케어 클렌징 파우더 한때 파우더형 클렌저가 많이 나와 몇 번 사용해본 경험이 있지만 클렌징 성능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좀 달랐다. 작은 알갱이들을 피부에 롤링하면 모공 속까지 들어가 노폐물을 말끔하지만 자극 없이 씻어내는 느낌. 세안 후 피부가 정화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클렌저는 꽤 오랜만이라 반갑다. 50g 4만5천원. 문의 070-8676-3432_*by 에디터 성정민*

아베다 스무드 인퓨전™ 퍼펙트 블로우 드라이 장마 시즌에 본투비 곱슬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헤어 손질에 어려움을 겪는 중. '부스스한 모발 케어 전용'이라는 반가운 수식어가 달린 이 아이템이 구세주가 되었다. 손질을 위한 드라이 전 가볍게 칙칙 뿌려주면 모발에 보호막을 씌운 듯 부스스했던 머리카락이 차분하고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다. 200ml 4만원대. 문의 02-3440-2905_*by 에디터 이주이*

달바 에어 핏 프레쉬 선 스틱 끈적임 없이 산뜻한 사용감의 비건 선 스틱. 마스크 착용 후 외출 시마다 가볍게 슥슥 발라주기만 해도 되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실키한 밤 제형으로 번들거림은 물론 백탁 현상 없이 촉촉하게 밀착한다. 여기에 피부 진정과 탄력 유지에 효과적인 트러페롤™ 성분을 함유해 스킨케어까지 톡톡히 아우르는 제품. 19g 3만6천원. 문의 02-332-7277_*by 에디터 이주이*

마리엔메이 시카 수딩 선크림 사계절 모두 외출 시 선크림은 빼놓지 않고 바르는 편. 특히 여름에는 올라간 피부 온도를 내려주고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이 제품이 딱 그렇다. 시카 콤플렉스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 효과를 선사한다는데, 발라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쫀쫀한 텍스처가 피부를 부드럽게 다독이는 느낌. 여름 자외선 차단제를 찾고 있다면 추천한다. 50ml 2만8천5백원. 문의 031-523-9023_*by 에디터 성정민*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럭스 아이 크림 프리미어 약하고 민감한 눈가 피부에는 꾸덕꾸덕한 것보다는 매끄럽고 촉촉하며 가벼운 텍스처가 좋은데, 여기에 빠른 흡수력까지 갖춘 제품이다. 일곱 가지 눈가 노화 신호인 잔주름, 깊은 주름, 리프팅 저하, 건조함, 부기, 탄력 저하, 다크서클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토털 아이 크림으로, 눈꺼풀은 물론 눈썹 뼈까지 발라주면 좋다.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ml 55만1천원. 문의 02-511-6626_*by 에디터 장라윤*

SHOWROOM

FASHION

MCM 골프 인 더 시티 MZ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 나가는 MCM에서 한정판 골프 웨어 컬렉션 '골프 인 더 시티(Golf in the City)'를 선보인다. MCM의 모노그램 패턴과 라우렐 로고로 장식한 윈드브레이커와 긴소매, 톱, 폴로 셔츠, 쇼츠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해 필드부터 스포티한 일상까지 여러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다. 문의 02-540-1404

토즈 토즈 X 콜나고 T 바이크 이탈리아 럭셔리 자전거 브랜드 콜나고와 함께 친환경적인 에코-모빌리티의 토즈 T 바이크를 출시한다. 두 브랜드의 이탈리안 전통과 장인 정신을 담은 토즈 T 바이크는 첨단 기술과 탄소섬유를 적용했으며, 짙은 레이싱 그린과 오렌지 레더 컬러 조합의 디자인으로 70대 한정 판매한다. 6월 13일부터 토즈 공식 사이트(Tods.com)에서 사전 예약 가능하다. 문의 02-3438-6008

로저 비비에 칼레이도쇼크 백 1995년 무슈 비비에가 제작한 쇼크 할에서 영감을 받은 시그너처 하우스 백, 비브 쇼크(Viv' Choc)의 새로운 컬렉션인 칼레이도쇼크 백을 선보인다. 칼레이도쇼크 백은 섬세한 비즈 작업과 자수 디테일 등 세련된 수공예가 특징으로, 로저 비비에만의 장인 정신을 담았다. 문의 02-6905-3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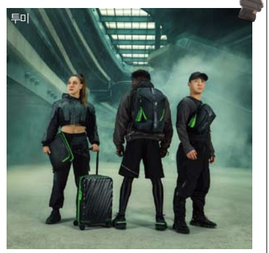
몽클레르 2022 S/S 원피스 스윔웨어 활동적인 현대인을 위해 제작한 여름 컬렉션 '매트 블랙 라인'에서 원피스 스윔웨어를 선보인다. 라운드 넥과 지퍼 여밈으로 구성된 이번 스윔웨어는 매트한 원단에 광택이 있는 로고를 더해 무더운 여름날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시티웨어로 활용 가능하다. 문의 080-311-0000

발렌티노 가라바니 스몰 사이즈 '로코 백' 장인 정신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오트 쿠튀르 브랜드 메종 발렌티노에서 스몰 사이즈 '로코 백'을 출시한다. 1990년대를 연상시키는 레트로 무드를 담았으며, 도시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매끄러운 가죽 또는 시퀸 소재를 사용해 데일리 웨어부터 이브닝 웨어까지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02-2015-4653

펜디 피카부 아이씨유 백 프티 사이즈 출시 최근 마이크로 백 트렌드에 맞춰 펜디에서 특유의 유머 감각과 장인 정신을 담은 피카부 아이씨유 백 프티 사이즈를 출시한다. 부드러운 가죽 소재를 사용한 아이씨유 백에 각진 시그너처 디테일을 담았으며 블랙 · 화이트 · 베이지 컬러부터 여름을 담은 컬러 팔레트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문의 02-514-0652

파비아나 필리피 2022 S/S 화이트 롱 드레스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현대적 미학으로 재해석하는 파비아나 필리피에서 화이트 롱 드레스를 선보인다. 화이트 롱 드레스는 오가닉 코튼 소재에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착용 시 시원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서머 드레스로 제격이다. 문의 02-6960-0843

투미 '투미 | 레이저' 컬렉션 투미와 레이저의 합작으로 게이밍 라이프스타일맞춤형 장비 '투미 | 레이저' 컬렉션이 탄생했다. e-스포츠 마니아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출시된 이번 컬렉션은 전 세계적으로 1천3백377개만 한정 판매되며, 투미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및 셀렉트 TUMI 지정 매장에서만 구입 가능하다. 문의 02-539-8160



JEWEL&WATCH

'몽블랑 하우스'를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상설 전시를 비롯해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자필 기록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록에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박서보 화백이 아내에게 쓴 자필 엽서도 포함되어 있다. 문의 1670-4810

부쉐론 쌔뱅 보헴 말라카이트 형태, 컬러, 소재의 무한한 믹스 매치를 추구하는 부쉐론에서 쌔뱅 보헴을 새롭게 선보인다. 대비를 이루는 옐로 골드와 말라카이트로 디테일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며, 여성미 넘치는 매력을 담은 링과 트위스트 체인이 팔목을 감싸 잠금장치 없이 개방된 뱅글 브레이슬릿으로 구성된다. 문의 02-772-3508

다미아니 '벨 에포크 브라이덜' 컬렉션 1백여 년 전통의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에서 웨딩 밴드의 전통적인 개념을 현대적인 주얼리 작품으로 재탄생한 '벨 에포크 브라이덜 라인'을 선보인다. 내부 모양과 둥근 가장자리를 손가락의 형태와 움직임에 맞춰 제작해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2-515-1924

불가리 선셋 인 에덴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불가리가 2022년 리조트 컬렉션 '선셋 인 에덴'을 출시한다. 핸드백, 선글라스, 주얼리, 워치로 구성된 선셋 인 에덴 컬렉션은 살구빛으로 물든 에덴의 컬러감을 사용해 어디서든 돋보이며, 휴가지의 즐겁고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2056-0171

몽블랑 몽블랑 하우스 오픈 몽블랑은 브랜드 창립 초기부터 몽블랑 필기구를 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필기구를 사용해 세상에 다양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품에 담아왔다. 이러한 브랜드 철학을 기리고자 독일 함부르크에

스와로브스키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뮤즈 벨라 하디드 미국의 톱 모델 벨라 하디드가 스와로브스키의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뮤즈로 활약한다. 스와로브스키 시그너처 레이아웃인 팔각형 테두리에 벨라 하디드의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을 담아내 매력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강조하는 스와로브스키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문의 1522-9065

BEAUTY

디올 2022 디올리비에라 리미티드 에디션 유니크한 스타일과 감성으로 프랑스 럭셔리 휴양지 리비에라에서 영감을 받아 'NEW 라 콜렉시옹 프리베 크리스챤 디올-디올리비에라 리미티드 에디션'을 새롭게 출시한다. 라 콜렉시옹 프리베의 아이코닉한 5가지 향수는 디올 리비에라 에디션으로 재해석되어 이국적인 세계로 떠나는 황홀한 여정을 선사한다.
문의 080-342-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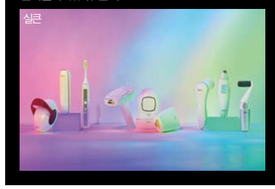
에스티 로더 NEW 마이크로 에센스 NEW 마이크로 에센스는 포스트 바이오틱 12+와 98.9% 바이오-

액티브 락토바실루스 발효 성분으로 이뤄져 여름철 예민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해준다. 더불어 피부 속 수분을 빠르게 잡아주어 속땅김 없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문의 02-6971-3212

뽀아레 쌔봉 뿌흐 르 비싸쥐 더운 여름날, 모공의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이 쌓인 피부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싸봉 뿌흐 르 비싸쥐'를 선보인다. 낮은 온도에서 저온 숙성 과정을 거친 마이크로 버블 폼이 특징으로, 오리스 뿌리 추출물과 로즈힙 오일을 함유해 피부에 보습감을 주며 늘어난 모공을 케어해준다. 문의 02-310-5025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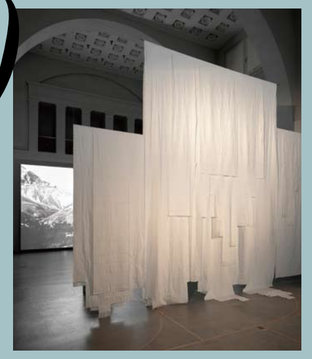
실큰 실큰데이 전 제품 55% 할인 홈케어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실큰 코리아에서 한국 론칭 11주년을 맞아 7월 25일 월요일, 단 하루 전 품목 최대 5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식 홈페이지(http://www.silkn.co.kr)와 실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https://smartstore.naver.com/silkn)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246-1234



시몬스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론칭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청담동 핫플'로 떠오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를 오픈했다. 7월 15일에서 28일까지 제페토 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포토 부스에서 인증숏을 촬영한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피드를 공유한 선착순 2백 명에게 시몬스 방수 에이프런 실물 굿즈를 증정한다. 문의 1899-8182

ART + CULTURE

40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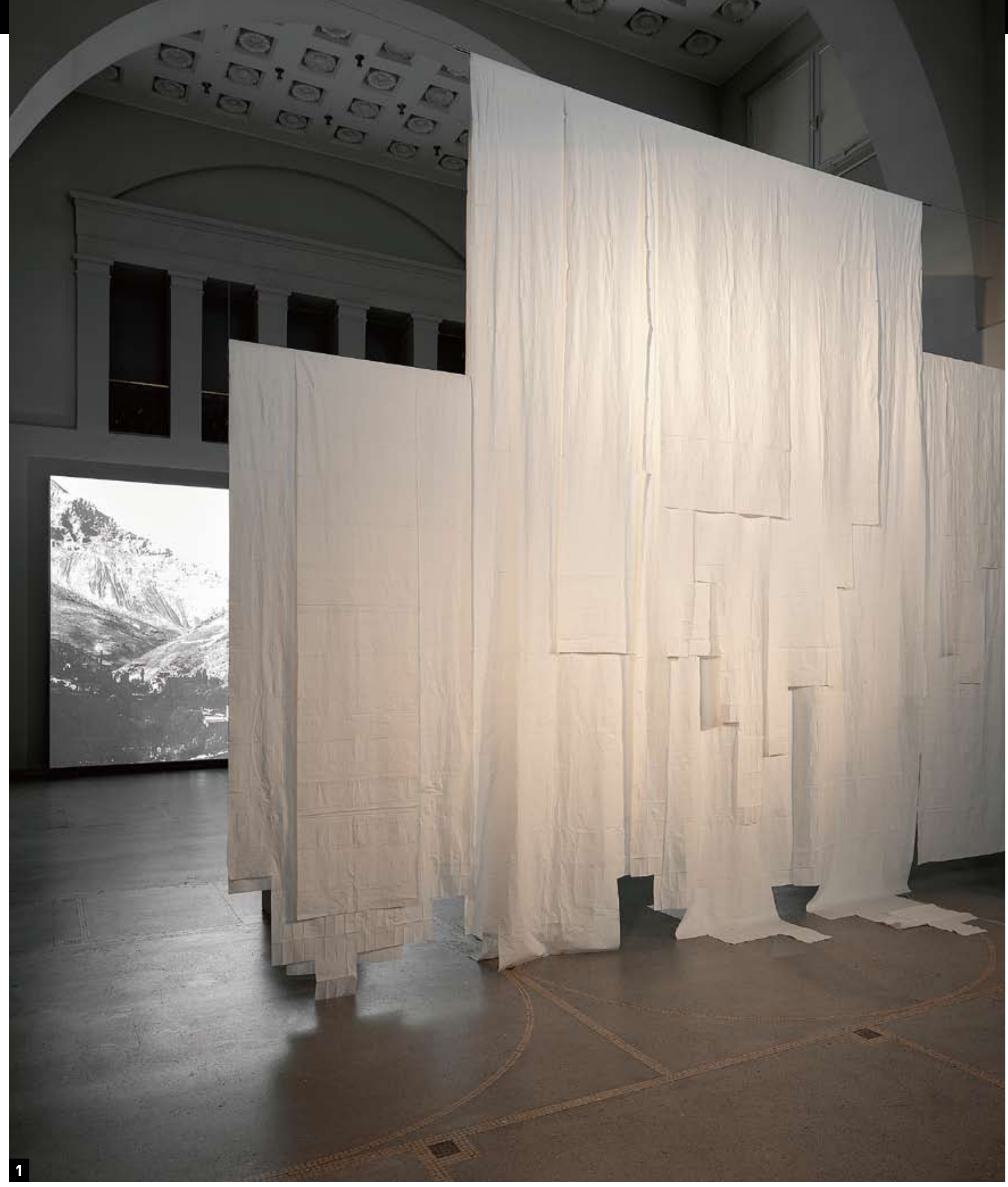
44

48

52

GLOBAL ARTSCAPES

팬데믹 같은 재해가 세상을 덮치면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니, 자연의 심술이니 하는 푸념이나 성토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자연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볼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또 새삼 고마움을 느끼게도 됐고요. 내일이 언제나 오는 게 아니고, 자연이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극히 평범한 진실을 곱씹으면서 말이지요. 평화롭고 느긋한 산책이 아니라 매일같이 장시간에 걸친 치열한 홀로 걷기를 통해 현실적인 구원을 꾀했던 철학자 니체는 자연에서 찾아낸 세 가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광대함, 고요함, 햇빛. 이로 인해 자신의 깊은 내면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거리를 마스크 없이도 활보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풍경이 우리에게 반가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는 오랜만에 아무런 제약 없는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스타일 조선일보〉 'Art+Culture' 여름 스페셜호에서 다뤘듯 유럽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 아트 바젤, 카셀 도쿠멘타 등이 줄줄이 이어지는 '현대미술의 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놀랍도록 북적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니 어쩐지 허무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찾아온 소란이 내심 싫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과 햇빛 사이를 잇는 수많은 풍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나름의 구원 방식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풍경은 자연이기 이전에 문화이며, 숲과 물과 바위에 투사된 심상(心象)의 산물이다"라는 사이먼 샤마의 말을 기억하면서. 글 **고성연**(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지난했던 전 세계적 휴지기의 과거와 다시금 국경 간 자유로운 왕래를 예측하는 근미래가 만난 현재, 세계 문화 예술계의 시선이 유럽을 향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카셀 도쿠멘타(Kassel documenta)는 지난 2019년 2월 도쿠멘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기반의, 그것도 단일이나 공동 큐레이터가 아닌 자카르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아트 컬렉티브 '루앙루파(ruangrupa)'를 예술감독으로 선정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루앙루파는 성명을 통해 "1955년 도쿠멘타가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창설되었다면, 2022년의 도쿠멘타15는 식민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적 구조에서 비롯된 현재의 상처에 주목하고, 이를 다양한 세계관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 기반의 모델에 대조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쿠멘타15가 진행되는 1백 일 이후에도 유효할, 협력 관계의 유기적 공동체와 문화 예술 플랫폼의 구축. 루앙루파의 이러한 제안은 카셀이라는 도시와 도쿠멘타가 지닌 역사적 의의, 명성, 그리고 전시의 맥락을 넘어선 공동의 사회적 실천에 가깝다. 게다가 이론만 그럴듯한 공허한 모토가 아니라 그들이 실천해온 개념과 활동에 바탕을 둔 것이라 진정성이 엿보인다. 지난 6월 15일 카셀의 주 경기장(Auestadion)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참여 작가의 퍼포먼스에 이어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 기록이 상영되었다. 관객과 함께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호응을 이끌어낸 루앙루파의 결에 맞춘 듯 도쿠멘타 전시장 곳곳에는 느슨하고 편안하게 공감하고 사색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이 꾸려져, 실천적 공동체라는 그들의 세계관을 차근차근 이해해나가는 데 도움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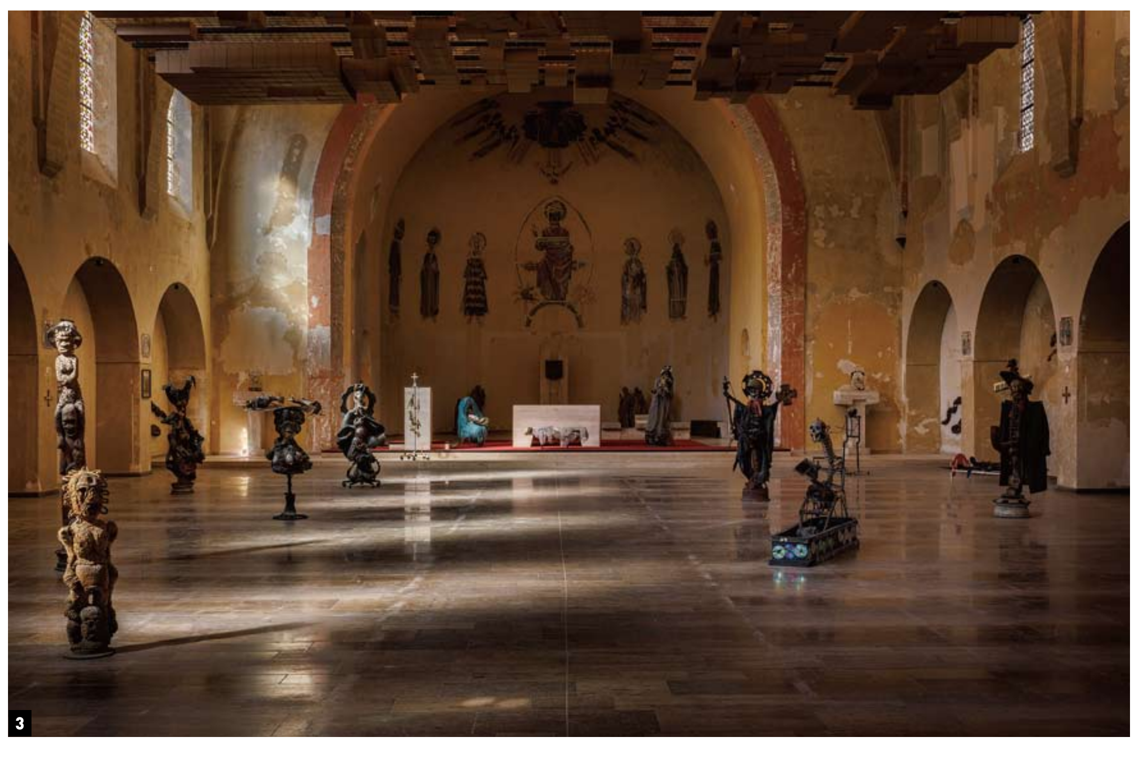
아트 컬렉티브 루앙루파의 실천적 개념 '룸붕', 그리고 에코시스템

'공간 형태(spatial form)', 혹은 '예술 공간(art space)'을 뜻하는 루앙루파는 2000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결성된 비영리 아트 컬렉티브다. 도쿠멘타15의 예술감독을 맡은 10명의 핵심 멤버를 포함한 컬렉티브는 지난 20여 년간 우정과 연대, 공동체의 중요성을 근간으로 예술가는 물론 지역 공동체, 다학제 간의 교류와 협동을 실행해왔다. 집단성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공간적, 개인적 실천을 주도해온 이들의 행보는 도쿠멘타15를 특정 주제로 묶는 대신 '룸붕(lumbung)'이라는 실행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잘 설명된다. 인도네시아어로 룸붕은 수확을 마친 뒤 공동체를 위해 잉여 수확물을 저장해두는 '공동의 곡창'을 의미하는데, 루앙루파는 룸붕이 유머와 관대함, 독립성, 투명성, 풍요로움과 재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체, 공유 자원의 구축과 공평한 분배의 대안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카셀을 하나의 도시 유기체로 바라보며, 2013년께부터 자카르타 기반의 컬렉티브들과 시도해온 '에코시스템(ekosistem)'을 도입하는데, 이는 생물과 환경, 다양한 종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참조한 것으로 지식이나 견해,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협업 네트워크 구조를 말한다. 준비 기간 동안 루앙루파와 5명의 아티스틱 팀, 14팀의 룸붕 멤버, 그리고 53명의 룸붕 아티스트는 수평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수많은 소규모 모임(마젤리스, majelis)을 통해 개별적, 집단적,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적 접근 방식을 모색했다. 탈중앙화를 시도하며 다수의 미술관이 위치한 도시 중심부 미테(Mitte), 풀다강(Fulda River) 주변부, 동부 산업 지구인 베텐하우젠(Bettenhausen), 그리고 북부 노르트슈타트(Nordstadt)에 펼쳐진 32곳의 전시 장소는 작가와 관객, 지역민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룸붕의 실행 장소로, 전시 기간 동안, 그리고 이후에도 기능과 역할이 순환된다.

도쿠멘타15(documenta fifteen) in Kassel

예술가들, '상생'을 향한 사회적 실천 모델을 제시하다

올봄 3년 만에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Biennale Arte 2022)를 시작으로 지난 달에는 베를린 비엔날레와 아트 바젤, 카셀 도쿠멘타(Kassel documenta)가 차례로 막을 올렸다. 이 중 도쿠멘타는 5년에 한 번씩 1백 일에 걸쳐 독일 중부의 한적한 소도시 카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계 최고 권위의 행사. 하지만 최초의 아시아 출신 예술감독, 그것도 개인이나 듀오가 아닌 컬렉티브(공동체)의 등용을 처음 시도한 올해의 도쿠멘타는 개막 직전에는 관심을 덜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같은 서유럽 내에서 벌어지는 '스타'로 점철된 진용, 블록버스터 콘텐츠를 내세운 '이웃 도시'들의 화려함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화제성이 덜했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외려 참신하고 진취적이라는 반응이 많이 나온다.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둔 이번 도쿠멘타의 특성상 평가는 이르지만 1백 일의 여정만이 아니라 그 이후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새로운 '판'이 카셀에서 펼쳐지고 있다. / 편집자 주



1 헤센주립박물관 1층에서 피나 외그렌지의 구조물과 영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documenta fifteen: Pınar Öğrenci, 2022, installation view, Hessisches Landesmuseum, Kassel Photo by Nicolas Wefers **2** 도쿠멘타15는 각 전시장에 휴식을 취하고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뒀다. documenta fifteen: Quiet space, Fridericianum, Kassel, 2022. Photo by JY Kim **3** 로마 가톨릭교회인 성 쿠니군디스에 아이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 레지스탕스와 그들이 초대한 작가를 포함한 총 40여 명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documenta fifiteen: Atis Rezistans | Ghetto Biennale, 2022, installation view, St. Kunigundis. Photo by Frank Sperling **4** 이끼바위쿠르르(고결, 김중원, 조지은)의 2채널 영상 '열대 이야기'. 공간의 한편에 설치된 '기념비'는 태평양전쟁 시 보크사이트, 인과 같은 광물 자원 확보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이들을 기린다. 보크사이트, 인, 감태, 그리고 동원 지역의 토양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다. documenta fifiteen: ikkibawiKrrr, Trophical Story, 2022, installation view, Ottoneum, Photo by the artist **5** 18세기 말에 지은 프리데리치아눔은 유럽 최초의 미술관이자 도쿠멘타의 상징적 전시장이다. 루마니아 출신의 작가 단 페르조브스키는 이곳의 정면 기둥을 룸붕의 가치에 관련된 드로잉과 글귀로 채웠다. documenta fifteen: Dan Perjovschi, 2022, installation view, Fridericianum. Photo by Nicolas Wefers **6** 콩고의 와자 아트 센터는 일련의 영상 아카이브와 설치를 통해 문화 헤게모니를 벗어난, 그들만의 언어로 담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공유한다. 둥근 천막의 안쪽 면에 설치된 영상 작품을 누워서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들. documenta fifteen: Centre d'Art Waza, 2022, installation view, Fridericianum **7** 할렌바트 오스트 전시관의 야외에 설치된 타링 파디의 '와양 카르두스(Wayang Kardus)'. 카드보드지로 만든 등신대 크기의 인형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 운동에 사용되기도 한다. 6, 7 이미지 Photo by SY Ko **8** 관객들이 빈백에 누워 와칼리가 우간다의 액션 코미디 영화 〈풋볼 코만도〉를 감상하고 있다. 라몬 필름 프로덕션으로도 알려진 이들은 우간다 캄팔라에서 2005년부터 저예산 영화를 제작해오고 있다. documenta fifiteen: Wakaliga Uganda, 2022, installation view, documenta Halle. Photo by JY Kim

재분배된 장소와 기능, 다양한 언어로 펼쳐지는 룸붕

카셀 중심부의 루루하우스(ruruHaus)는 물리적 공간에 모여 의견과 자원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도시의 공유 거실이다. 실제 루앙루파는 자카르타에서 임대주택의 거실을 전시와 협력의 공공장소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을 도입한 루루하우스는 만남과 휴식, 교류의 장이 된다. 도쿠멘타의 상징적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프리데리치아눔(Fridericianum)은 확장된 개념의 배움터로 변신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루키즈(Rurukids), 브라질 작가 그라지엘라 쿤쉬가 마련한 공공 돌봄 센터, 공용 도서관, 거주 공간과 주방, 아시아 지역 퍼포먼스 예술과 네덜란드 노예 해방의 역사에 관한 아카이빙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전시를 위한 공간 등으로 꾸려졌다. 삶과 예술의 병치, 소통과 협력, 공유를 아우르는 룸붕 자체로 거듭난 느낌이었다. 오토노임(Ottoneum)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시각 연구 밴드 이끼바위쿠르르의 영상과 설치 작업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와 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에 남은 태평양전쟁의 흔적을 추적한 '열대 이야기'와 제주 해녀 공동체에 관한 '해초 이야기'는 장소와 공동체의 현재가 드러내는 식민의 역사와 생태학의 다각적 관계성에 주목한다. 지근거리의 도쿠멘타 할레(documenta Halle)는 1992년 온전히 도쿠멘타를 위해 지은 공간으로, 와주쿠 아트 프로젝트는 전면 유리로 이루어진 입구에 나이로비 빈민가와 마사이 전통 가옥을 참고한 구조물을 설치해 접근 가능한 재료와 문화적 태도에 기인한 장소의 경험을 전복시킨다. 전시장 내부에는 반누르그 컬래버레이티브 아츠 앤드 컬처의 그림자 인형극,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장은 물론이고 작가와 컬렉티브들이 출판물을 만들거나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룸붕 프레스가 자리한다. 우간다의 타란티노라 불리는 나브와나 IGG(와칼리가 우간다)가 제작한 〈풋볼 코만도〉가 프리미어 상영되며 이들 스타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개 워크숍이 마련된다.

헤센주립박물관(Hessisches Landesmuseum)에는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피나 외그렌지의 단채널 영상 '눈사태(Avalanche, 2022)'가 눈길을 은근히, 그러면서도 강하게 잡아끈다. 아버지의 고향이자 터키 남부의 국경 산악 지대인 무쿠스의 쿠르드인들이 겪은 국가적, 종교적 탄압,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과거의 죽음과 현재의 위태로움을 눈 덮인 풍경, 아카이브 사진과 오버랩하는 이 작업은 시적인 영상미와 호소력 있는 내러티브로 상당수 관람객들로 하여금 1시간의 러닝 타임 내내 자리를 못 뜨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입구에 드리운 티슈 설치물은 현지 여인들이 손바느질한 것으로, 떠난 이들에 대한 기억과 애도를 담고 있다. 베텐하우젠 지역의 할렌바트 오스트(Hallenbad Ost)는 1929년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지은 실내 수영장으로 2009년 이후 빈 공간이었다. 도쿠멘타15는 인도네시아 컬렉티브 타링 파디의 대형 배너와 포스터, 등신대 크기의 카드보드지 인형으로 도시의 구성원들이 기억하는 이 공간의 경험을 재정의한다. 2021년 독일의 제조사 휘브너가 도쿠멘타15에 일부 양도한 산업 부지의 휘브너 에어리얼(Hübner areal)에서는 전시와 협업, 콘서트, 연극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작가들이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룸붕 키오스크가 운영된다. 이 밖에도 풀다 강변과 도심 공원 카를스우에, 지하도로 등 카셀 곳곳에 지속 가능한 유무형의 가치, 물질/비물질의 재료, 공간, 문화적 다양성이나 갈등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오프닝 기간의 룸붕 프로그램과 더불어 광장이나 공원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를 뜻하는 메이단(Meydan) 프로그램은 워크숍, 토크, 퍼포먼스, 스크리닝, 그리고 다양한 모임의 형태로 매달 둘째 주 주말(금요일부터 일요일)에 진행된다.

수확, 1백 일 이후의 열린 가능성

도쿠멘타15에 참여한 작가들은 개별, 혹은 집단의 언어로 함께 룸붕을 연습하고 실천한다. 토론과 모임을 통한 이들의 상호작용은 녹음이나 녹화, 글쓰기로 '수확(harvest)'되어 자원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룸붕 라디오와 룸붕 필름을 통해 이미 수확된 자원과 앞으로의 기간 동안 모일 수확물은 도쿠멘타15의 1백 일 대장정이 끝난 뒤에도 산발적으로 또 다른 문맥을 형성하고, 증가시킬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집단적 실천의 여정에는 나이와 성별, 신체적 장애나 문화적 배경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전시 소책자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버전을 택할 수 있고, 각각의 전시 장소에 접근 가능한 시설을 명시한 것처럼 모두가 초대되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공식 오픈 뒤 얼마 되지 않아 타링 파디의 대형 야외 배너 '민중의 정의'가 반유대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작가와 도쿠멘타 측이 수하르토 독재 정권기의 복잡한 권력 관계가 유발한 폭력과 착취, 검열에 희생된 인도네시아인들의 오랜 투쟁을 담은 작업임을 분명히 밝히고 유감을 표했음에도 배너는 설치 3일 만에 철거되었다. 루앙루파가 제안하는 생태학적인 동시에 인류학적인 룸붕의 가치가 문화적 배경을 빌미로 폄훼되거나 배타적 태도로 오독되지 않기를, 평등한 실천과 연대로 도쿠멘타 이후에도 풍요롭게 작동하기를 기대해본다. 글 **김정연**(독립 기획자)

1

2

최강 아트 페어는 어떻게 브랜드 파워를 키워갈까

강소국 스위스 북서부에 위치한 바젤은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자체 인구는 20만 명 수준이다. 엄격한 행정적 기준으로 20만 남짓이고 인접 도시권까지 포함하면 70만 명 가까운 규모로 커진다지만 여전히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학과 제약, 금융 산업이 발달했고 독일, 프랑스와 맞닿는 국경 지대에 있는 만큼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 '작지만 강한' 국제도시답게 다양한 영역의 글로벌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데, 해마다 6월이면 '아트 도시'로 부각된다. 세계 최강 브랜드 파워를 지닌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Art Basel in Basel)이 열려서다. 1970년에 시작된 아트 바젤의 원조 도시가 바로 바젤이다. 올여름, 바젤의 아트 신은 마치 팬데믹 전으로 다시 돌아간 듯 활기를 되찾았다.

3

한때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트 페어에 다니는 이들의 캘린더는 거의 '비어 있는 달이 없을 정도로, 심할 때는 도시를 이리저리 옮겨 한 달에도 서너 개 행사를 섭렵해야 할 정도로 빽빽했다. 갤러리스트든 컬렉터든 아티스트든 미술 기자든 '아트 페어족'은 대체 쉴 틈이 없다고 응석 어린 푸념을 하곤 했다. 물론 이는 2020년 우리 인류를 덮친 팬데믹 이전의 풍경이다. 코로나19가 어느덧 엔데믹 기조로 접어들면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는 저마다의 아트 페어를 다시 열기 시작했고, 미술 시장의 호조세에 힘입어 높은 실적을 낸 갤러리들의 환호성이 자주 들렸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었다. 하늘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닌 데다 방역 규제 수준이 높은 탓에 다국적 인사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리운 풍경은 오래도록 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리하여 아트 페어의 브랜드 가치를 따질 때 현존 최강이라 할 수 있는 아트 바젤의 본산인 스위스 바젤 행사가 드디어 올해는 원래대로 6월에 열린다는 사실에 몇 달 전부터 미술 애호가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흔히 '바젤 바젤'이라고도 불리는 ABB(Art Basel in Basel)는 연례행사지만 팬데믹 첫해에는 온라인 행사로, 작년에는 가을에 치러진 터라 초여름을 장식하는 글로벌 현대미술 장터다운 위용으로 돌아온 건 무려 3년 만이다. 이 같은 귀환을 환영하듯 VIP 프리뷰 기간을 포함해 일주일간(6월 13일부터 19일까지) 7만 명가량의 관람객이 아트 바젤 현장을 찾았다.

'진짜 아트 바젤이 돌아왔다'_도시를 감싼 열기

요충지 역할을 하는 강소 도시의 운명이 그러하듯 바젤 역시 내로라하는 국제 행사가 열리면 '숙박 전쟁'을 치른다. 프라이빗 제트기가 바젤의 하늘로 속속 몰려들고, 조금 괜찮다 싶은 레스토랑들은 예약이 꽉 차며, 시내 호텔에는 방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상황도 벌어진다. 올해 아트 바젤의 주 전시장인 메세 바젤은 3년 전처럼 마스크를 대부분 쓰지 않은 인파로 가득했는데, 특히 아트 페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최근 수년간의 트렌드가 여전히 이어지는 듯 VIP 프리뷰 기간이 외려 더 붐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백 투 노멀(back to normal)'이라며 감격에 겨워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누구나 그렇지는 않다. 아트 바젤까지 와서 '발품'을 팔지 않을 수는 없지만 조금은 한가롭게 거닐 수 있기를 바라는 이들도 많다. 더구나 이미 베니스 등을 거치면서 전시를 30개도 넘게 보고 다닌 경우라면? 작품을 사겠다는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미학적 충족을 위해 찾거나 간만에 미술계 지인을 만나러 온 경우라면? 실제로 바젤에서 만난 필자의 지인 중에는 아트 페어라는 플랫폼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이탈리아 갤러리스트가(소속 작가 목록은 꽤 알차고 세계적인) 있는데, 그래도 아트 바젤은 예외적으로 '관찰'이라도 한다. 필자의 경우도 올해만큼은 아트 바젤은 기꺼운 '덤'에 가깝고 이 도시의 보석 같은 미술관인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 다시 방문하기를 주요 과제로 삼기를 원했을 만큼 '유유자적 관람객'을 꿈꿨다. 사실 성공적인 아트 페어 브랜드를 지닌 도시라면 지극히 자본 친화적인 미술 장터를 미끼로 각 도시 고유의 인프라를 전폭 활용하는 '지역 축제'로서의 확장성을 일궈내기 마련이지 않은가. 모름지기 여러 면모를 지녀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춘 도시를 무대로 할 때 아트 페어도 수명을 보다 길게 늘릴 수 있는 법이고 말이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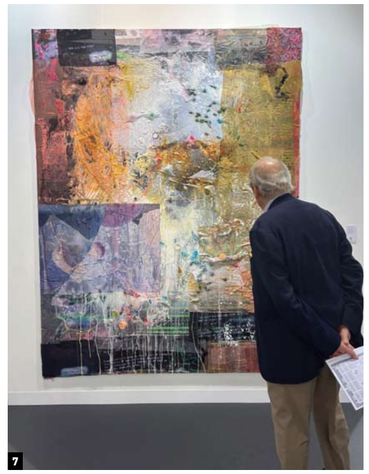
5

6

도시 곳곳은 물론 국경 너머로 이어지는 콘텐츠 향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발품을 아주 열심히 팔았다. 6월 13일, 본격적인 장터가 열리기 하루 전에 도시 곳곳에서 장소 특정적 작품을 선보이는 장외 전시인 파쿠르(Parcours)와 장내 대형 설치 작품을 전시하는 언리미티드(Unlimited) 등 예술성을 보여주는 '백미'로 일컬어지는 아트 바젤의 섹터들, 그리고 주로 신진 현대미술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리스테(Liste), 디자인 페어인 디자인 마이애미(Design Miami) 같은 위성 페어의 프리뷰가 VIP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펼쳐진다. 아트 바젤 VIP 카드 소지자라면 웬만한 위성 행사와 미술관 입장도 '프리 패스'다. 늘 주목받는 언리미티드 부문은 유명 갤러리가 대표 작가의 대형 작품을 설치해 '오픈 스페이스'에 펼쳐지는 미술관을 연상시키는데(하지만 판매된다), 올해는 70개 부스가 전시장을 채웠다. 입구에 들어서면 미국 작가 안드레아 지텔이 10년간에 걸쳐 제작하고 착용한 개인 유니폼 76벌을 입힌 설치대가 늘어서 있어 마치 패션쇼에 온 듯한 착각이 잠시 들고, 이어 각양각색의 볼거리가 관람객을 압도해 눈과 발과 손이 절로 바쁘게 움직이게 된다. 독일의 유명 작가 볼프강 틸만스(Wolfgang Tillmans)의 잉크젯 사진 시리즈(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 요안 카포테(Yoan Capote)의 카리스마 넘치는 회화(갤러리 콘티누아), 로나 심프슨(Lorna Simpson)의 세리그래프 작품(하우저 앤워스) 등이 줄줄이 미술관 등 기관에 판매됐다. 저녁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멀틸 세션'도 기다리고 있다. 첫날 상영 작가는 태국이 낳은 거장 아피찻퐁 위라세타꾼(Apichatpong Weerasethakul). 바젤에서 첫날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이튿날, 오전 11시부터 퍼스트 초이스 VIP 카드를 지닌 고객들은 메인 전시장인 갤러리즈(Galleries) 섹터에 입장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북적북적했다.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는 피처(Feature) 섹터와 떠오르는 작가들의 솔로 부스 18개를 차려놓은 스테이트먼츠(Statements) 섹터와 함께 메세 바젤 컨벤션 센터의 1, 2층을 채우고 있었다. 올해 ABB에는 40개국 2백89개 갤러리가 참여했는데, 그냥 지나칠 만한 부스가 없을 정도로 면면이 화려했다. 피카소, 칼더 같은 20세기 거장들은 물론 게르하르트 리히터, 안젤름 키퍼 같은 동시대 거장들까지 신구작을 접할 수 있으니 다국적 미술관이 따로 없다. 요즘 가장 존재감 있는 글로벌 갤러리로 꼽히는 하우저앤워스는 아예 루이즈 부르주아의 커다란 청동 거미(높이 3.26m, 지름 7m 이상)를 들여놓아 단연 시선을 끌었다. 부스 전체를 감싸듯 존재감이 남다른 이 작품은 4천만 달러에 거래되어 기록을 새로 썼다. 전시장을 벗어나면 또 다른 세상이 전개된다.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의 몬드리안 전시, 그리고 쿤스트뮤지엄의 〈피카소-엘 그레코〉 전시 등 블록버스터 전시를 빼놓을 수 없다. 국경 너머 조금만 더 멀리 가면 독일 땅에는 디자인 성지로 여겨지는 비트라 뮤지엄도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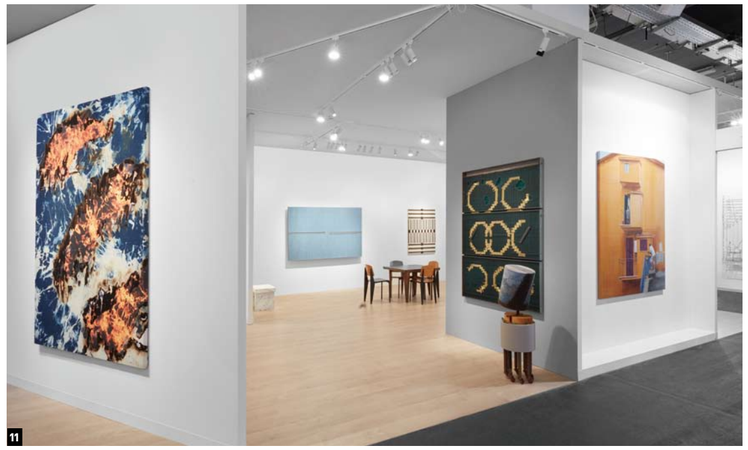
7

8

1 해마다 현대미술 애호가들을 스위스 도시 바젤로 모여들게 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아트 페어 아트 바젤 인 바젤(ABB)이 펼쳐지는 컨벤션 센터의 상징적인 이미지('하늘을 위해 열린 창'). 올해 행사에는 7만 명이 찾았는데, 9만 명 규모였던 팬데믹 직전에 비하면 적지만 중화권 VIP들이 빠진 점 등을 반영한 숫자로 보인다. **2** 미국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 아트 바젤(ABB22) 언리미티드 섹터에 선보인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작품. Courtesy Art Basel **3** 하우저앤워스(Hauser & Wirth)의 언리미티드 섹터 출품작. Thomas J Price, 'Moments Contained'(2022), Bronze, Ed. 1/3 + 1 AP, 363 x 128 x 94.5cm © Thomas J Price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Stefan Altenburger Photography Zürich **4, 5** 세계적인 사립 미술관인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몬드리안 전시. 미술관 설립자 에른스트 바이엘러는 아트 바젤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6** 올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아트 바젤 2022 개막과 거의 동시에 막을 연 쿤스트뮤지엄 바젤(Kunstmuseum Basel)의 〈피카소-엘 그레코(Picasso-El Greco)〉 전시. 오는 9월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7**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가를 양성해온 프랑스의 상징 크루젤(Galerie Chantal Crousel) 갤러리에서 소개된 신예 미모사 에사르(Mimosa Echard)의 평면 작품. 필레드 도교 전시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핫한 작가. **8** 스위스 태생의 글로벌 갤러리 하우저앤워스 부스를 존재감 넘치게 해준 루이즈 부르주아의 1996년작 '거미(Spider)'. 갤러리즈 섹터 VIP 오픈 첫날인 14일 4천만 달러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에 마크 브래드퍼드(왼쪽)와 루이즈 부르주아(오른쪽)의 평면 작품이 걸려 있다. Installation view, Hauser & Wirth at Art Basel 2022, featuring Louise Bourgeois, 'Spider'(1996) © the artists / estates, Courtesy the artists / estates and Hauser & Wirth. Photo: Jon Etter **9, 10** ABB의 피처(Feature) 섹터(9번)와 스테이트먼츠(Statements) 섹터(10번)에 전시 중인 카스민 갤러리 부스(월리엄 코플리 작가)와 시토 샤토(Château Shatto) 갤러리 부스 모습(이리아 딘 작가). **11** 올해 한국 갤러리로 유일하게 아트 바젤 메인 무대인 갤러리즈(Galleries) 섹션에 참가한 국제갤러리 부스. Photo by Sebastiano Pellion di Persano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12** 세계적인 디자인 페어인 디자인 마이애미/바젤도 아트 바젤 기간에 함께 열린다. ※1, 4~7, 9, 10, 12 이미지 Photo by SY Ko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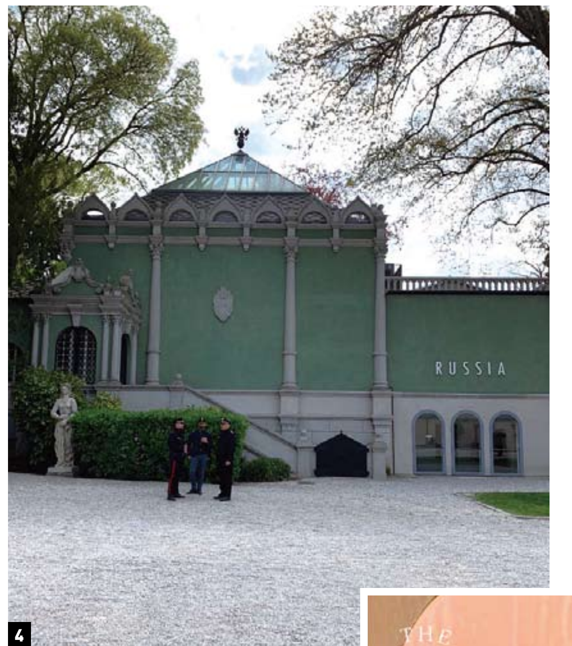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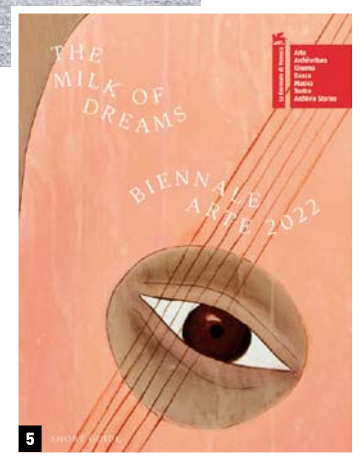
11

프리즈와 글로벌 대전? '파리+' 출범과 아시아 시장 이슈

세계 최강의 브랜드 파워이자 최대 규모인 ABB를 폭풍처럼 훑은 뒤의 감상은 '명불허전'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 아트 바젤 글로벌 디렉터 마크 스피글러는 "직접 대면하는 행사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ABB에는 대형 신인들이 메가 갤러리 부스에도 꽤 두드러지는 몫을 차지했다는 평이 나왔는데, 글로벌 '블루칩'만이 아니라 참신한 기대주에 대한 관심의 공존이 엿보였다. 그리고 늘 그렇듯 아트 바젤 부스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 등 서구권 행사에서 선보인 작가들도 더러 눈에 띄었는데, 비엔날레 본전시에 소개되고 있는 이미래 작가(티나 킴 갤러리)도 ABB 스테이트먼츠 섹터에 소개됐다. 올해 한국 국적의 갤러리로는 국제갤러리가 유일하게 참가했는데, 제니 홀저 같은 글로벌 스타의 작품도 소개됐지만 유영국, 이기봉,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태국 작가) 등 아시아 작가들도 주목받았다(이들 작품은 판매로도 연결됐다). 아트 바젤의 발상지인 ABB에는 아무래도 구미 지역 갤러리가 많은 게 당연하다. 지역성을 따는 홍콩, 마이애미 등의 에디션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왕래가 쉽지 않은 아트 바젤 홍콩(ABHK)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또 오는 9월 초 또 다른 굴지의 아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의 서울 입성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올가을 프랑스를 상징하던 세계 3대 아트 페어 피악(FIAC)을 대신해 'Paris+, par Art Basel'을 론칭해 영토를 확장할 예정인 아트 바젤은 벌써부터 프리즈의 진출로 들뜬 아시아 시장도 의식해서인지 아트위크 도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나서는 등 '최강 수성'을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글 **고상연**

12





BIENNALE ARTE 2022

현대미술 제전의 열기 속으로

1백 년이 훌쩍 넘는 역사와 권위를 지닌 베니스 비엔날레. 전통적으로 홀수 해에는 국제 미술전인 아트 비엔날레가, 짝수 해에는 건축 비엔날레가 열려왔다. 올해는 짝수 해지만 전 지구를 강타한 팬데믹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아트 비엔날레'가 비로소 찾아왔다.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는 4월 23일 공식 개막하며 11월 27일까지 2백19일간 이어지는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프리뷰 기간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북적인 베니스의 모습은 '엔데믹'에 대한 공식 선언을 방불케 했다. 간만에 활기를 되찾은 운하의 도시는 국제 미술전 본전시와 30개의 병행 전시 외에도 지난 3년간의 공백을 메우려고 작정한 듯 절로 경탄을 자아내는 전시로 넘실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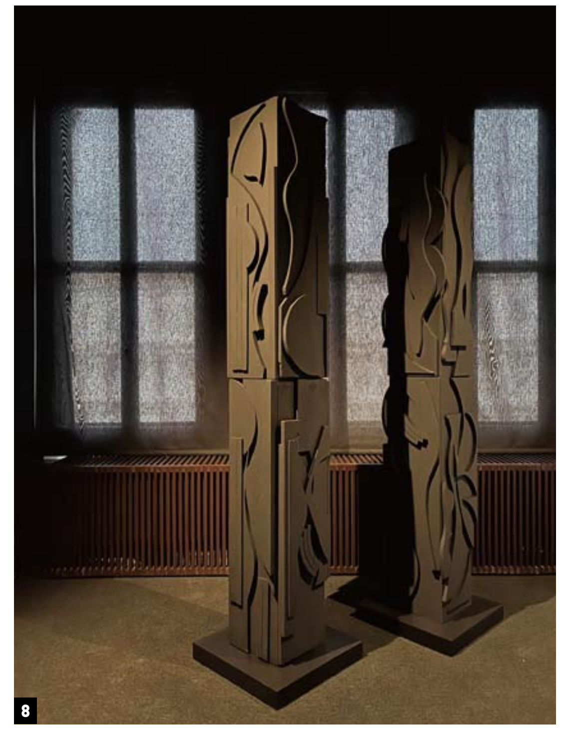
3년 만에 재개된 비엔날레에서는 무엇보다 '여풍'의 강세가 돋보였다. 우선 비엔날레 총감독을 뉴욕 공공 미술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하이 라인(High Line) 아트 프로그램 총괄 기획자 체칠리아 알레마니(Cecilia Alemani)가 맡았다. 국제 미술전의 시초로 여겨지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시작된 1895년 이래 이탈리아 출신의 여성 큐레이터가 총감독으로 발탁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본전시에 참여한 58개국 2백13명 작가 중 여성 작가는 1백88명에 달하며, 성비율에서도 남성 작가 수를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비엔날레 재단에서 수여하는 황금사자상 또한 여성 작가들이 휩쓸었다. 국가관 부문은 영국관을 대표한 소냐 보이스(Sonia Boyce)가, 본전시 부문에서는 미국관 대표 작가로도 나선 시몬 리(Simone Leigh)가 나란히 수상했다. 특히 흑인 여성 아티스트들이 비엔날레 최고 영예로 여겨지는 황금사자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미술사의 새 장을 열었다. 평생공로상 수상의 영광 역시 독일 출신의 카타리나 프리치와 칠레의 세실리아 비쿠냐, 두 여성 작가에게 돌아갔다. 문화 예술계 석학 언드라시 산토(András Szántó)와의 대화에서 체칠리아 알레마니는 자국 출신 여성이 총감독이 되기까지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라는 질문에 그간의 성 차별적이며 억압적인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알레마니는 2005년 비엔날레 사상 첫 여성 총감독이 임명된 이래 다섯 번째 여성 총감독이다).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그녀는 이번 비엔날레가 후세에 '코비드 비엔날레(covid biennale)'라는 별칭 외에도 '여성 비엔날레(women biennale)'로 기억 남길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다시 베니스! 여풍당당 흐름 속 매혹적인 초현실주의

'꿈의 우유(The Milk of Dreams)'라는 제목을 앞세운 비엔날레를 관통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재탄생'과 '유대감(rebirth and togetherness)'이다. 전시 주제는 영국 출신으로 멕시코에서 활약했던 초현실주의 작가 리어노라 캐링턴(Leonora Carrington)의 저서에서 따왔다. 상상의 프리즘 너머 신체가 변형되고 삶이 끊임없이 재구상되는 마법의 세계를 묘사하는 책에서처럼 전시는 누구나 서로 다른 생물 혹은 비생물로 변화할 수 있는 세계관 속에서 신체의 개념에 대한 은유를 탐구하고 인류의 정의를 내려보는 상상의 여행으로 보는 이를 이끈다. 여기에 개인과 기술의 관계, 인류와 지구의 연관성 같은 근원적인 질문이 더해져 과학, 예술을 넘나들고 신화에 만연한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듯이 펼쳐진다. 그간 개념미술에 주로 천착해온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을 거슬러 근대미술의 획을 그은 상징주의와 꿈이 이번 비엔날레에서 재부상한 데는 팬데믹과 기후 위기, 전쟁에서 비롯된 종(種)의 생존이 위협받는, 말 그대로 초현실적인(surreal) 역사의 순간을 살고 있는 인류의 현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런던 테이트 모던이 공동 기획해 뉴욕에 이어 현재 런던에서 선보이고 있는 〈Surrealism Beyond Borders〉 전이나 베니스의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Surrealism and Magic: Enchanted Modernity〉전도 이와 맥을 함께한다.

공교롭게도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같은 초현실주의 미술 거장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으며,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스페인 독감 이후 1백여 년 만에 찾아온 팬데믹과 전쟁을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격변의 시대를 기록하고 새로운 형태로 현존하는 방식을 고안해내고자 했다. 무엇보다 1895년 제1회 베니스 비엔날레 당시 참여한 8개국에도 포함되었던 러시아의 국가관 앞 무장 경찰과 빗장을 걸어놓은 모습이야말로 하나의 설치미술을 방불케 했다. 야외 전시장 한편에는 우크라이나 광장(Piazza Ucraina)이 들어서 반전(反戰)과 평화를 호소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술계의 연대와 지지를 표했다.

이번 비엔날레 참여 작가진은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울렀다. 동시대를 누비는 신진 작가는 물론, 1647년 생인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Maria Sibylla Merian)을 비롯해 19세기, 20세기에 활동한 작가의 작품도 대거 포함됐다. 본전시에 참여한 2백13명의 아티스트 중 지금까지 국제 미술전에서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작가도 1백80여 명에 달한다고. 생물학적 성별 관행을 따르지 않는(gender non-conforming) 작가군의 참여도 돋보였다. 일부는 사회적 불안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다수의 작가가 다룬 것은 다가올 희망, 조화, 공존이었다. 벨기에관을 대표한 프랜치스 알뤼스(Francis Alÿs)의 작품은 1999년 시작한 'Children's Games' 연작으로 작가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어린이들이 나라별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한다. 각각의 놀이 형태는 다르지만 이를 충실히 즐기면서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문화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산하는 어린이 특유의 희망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보는 이의 눈길을 오랫동안 사로잡는다.



1 Francis Alÿs, 'The Nature of the Game'(2021). 전 세계의 서로 다른 문화권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기록해온 프란시스 알리스의 영상 작품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들. Photo by 황다나 **2** 아르세날레 본전시장 입구에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 대표 작가로도 참여해 작가상 부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시몬 리(Simone Leigh)의 조각상이 쿠바 출신의 벨키스 아욘(Belkis Ayón)의 작품과 어우러지며 강렬한 인상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Photo by Roberto Marossi **3** 우크라이나 광장(Piazza Ucraina). Photo by Marco Cappelletti **4** 4월 프리뷰 기간 무장 경찰 여럿이 서성였던 러시아관. Photo by 황다나 **5** '꿈의 우유(The Milk of Dreams)'라는 제목을 앞세운 비엔날레 공식 포스터 이미지 중 하나. **6, 7** 베니스 곳곳에는 앤터니 곰리(왼쪽), 아니쉬 카푸어(오른쪽) 등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거장의 전시도 개최되고 있다. Photo by 황다나 **8**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국 작가 루이즈 네벨슨의 〈Persistence〉 전시 모습. 1962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 참여 60년 만에 개최된 전시라 한층 의미가 더해졌다. **9**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최대 화제로 손꼽히는 안젤름 키퍼 전시. **10**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병행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광영 작가의 〈재창조된 시간들(Times Reimagined)〉 전시 모습. **11** 비엔날레 병행 전시인 하종현 전시는 팔라제토 티토에서 8월 24일까지 개최된다. **12** 이건용 〈Bodyscape〉 전시는 팔라초 카보토에서 7월 4일까지 열린다. **13** 폰다조네 퀘리니 스탐팔라 오니우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얀 보(Dahn Vō), 이사무 노구치, 박서보 그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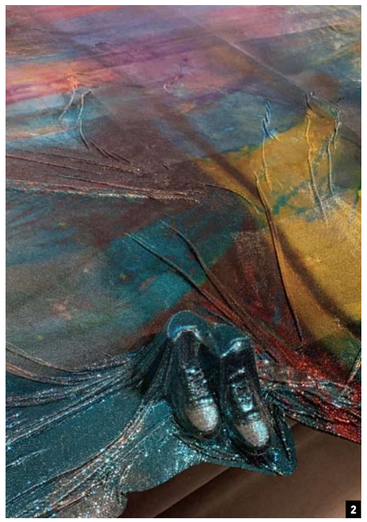
실존의 심연 속으로: 안젤름 키퍼, 아니쉬 카푸어, 루이즈 네벨슨, 루치오 폰타나/앤터니 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대인의 삶에 아찔하게 침투해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사회현상에 명민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도시 전체가 매년 조금씩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베니스에서 펼쳐지는 전시는 실존의 심연 속으로 좌중을 안내하고, 압도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울린다. 이번 비엔날레 최대 화제 중 하나는 두칼레 궁(Palazzo Ducale)에서 열리는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전시다. 베니스 출신 철학자 안드레아 에모(Andrea Emo, 1901~1983)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키퍼가 에모의 저서 〈Questi scritti, quando verranno bruciati, daranno finalmente un po' di luce(집필한 이 글들이 태워져 비로소 한 줌의 빛을 비추리라)〉에서 제목을 가져왔다. 전시가 끝나면 역시 태워서 파기할 예정이라는 공간 맞춤형 작품 앞에서 실존을 너머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되새겨보도록 만든다. 갤러리 델 아카데미아와 팔라초 만프린에서 개최되는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전시도 놓치면 아쉬울 광경을 연출한다. 카푸어의 초창기 작품부터 공간을 위해 특별 제작된 2022년 신작에 이르기까지 40년에 달하는 작업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

두칼레 궁과 지척인 산 마르코 광장 부근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전시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공간 그리고 관람객과 공명하는 두 전시가 열리고 있다.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참여로 리뉴얼한 프로큐라티에 베키에에서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국 작가 루이즈 네벨슨(Louise Nevelso)의 〈Persistence〉 전시가 한창이다. 본전시에서도 만날 수 있는 네벨슨의 전시는 1962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 참여 60년 만에 열린 전시라 더욱 의미가 있다. 옛 안경 전문점에 들어선 작은 전시 공간 네고치오 올리베티에서 개최되는 루치오 폰타나/앤터니 곰리 전시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거장이 작품을 통해 빛, 공간, 부재(absence)에 대해서 어떻게 내면의 대화를 이끌어내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도시 곳곳을 수놓은 한국 대표 거장 4인의 전시: 박서보, 이건용, 전광영, 하종현

재료와 물성에 대한 사유, 미술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을 다뤄온 한국 대표 거장 4인의 전시도 베니스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 옛 건축물 내 한국 고유의 미감이 어우러지는 전시는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한국 미술 최전방에서 시대와 호흡을 맞춘 실험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신작과 주요 지점을 관통하는 구작을 아우르며 창의적인 실험 정신과 색조의 변주를 보여준다. 세계 미술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전복의 회화'로 자리매김한 이건용의 'Bodyscape' 연작은 유서 깊은 팔라초 카보토에서 전시되고 있다. 비엔날레 개최 기간 중 2017년 이승택 개인전, 2019년 이강소 개인전을 선보이기도 했던 이곳에서 전위적 퍼포먼스와 서사를 결합한 화업의 신작을 만날 수 있다. 전광영과 하종현의 전시는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병행 전시의 일환으로 꾸려졌다. 삼각형의 작은 입체 조각 단위 하나하나를 고서 한지로 감싸 재배열하고 때로는 강렬한 색으로 염색해 고요하면서도 웅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집합으로 응고시켜온 전광영의 '재창조된 시간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과 어우러지며 동서양의 조우를 이뤄냈다. 박서보는 얀 보(Dahn Vō), 이사무 노구치와의 그룹전에 참가했다.



세나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5월 일찌감치 개막한 브루스 나우만의 전시는 지난 50년간 사운드, 영상, 네온, 홀로그램과 3D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작업해온 작가가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는 과정을 돌이보게 한다. 예전 작품과 신작에서 느껴지는 기술의 비판적인 발전과 점점 나이 들어가는 나우만의 모습에서 세월을 감지하며 작가가 걸어온 여정을 살펴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마를린 뒤피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즉 1948년에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 분리 정책이 시행된 후 5년 뒤인 1953년,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한창 심하던 시기에 나고 자라 현재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백인으로 살아가며 겪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죄책감, 사회상을 작품에 반영하면서 때로는 단순하지만 역동적인 구도와 거친 붓질 너머 인종차별 같은 불편한 진실을 담아내며 독창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다. 이탈리아에서의 첫 회고전을 오픈하며 뒤피는 자신의 모든 작업을 하나로 아우를 제목이 무엇일지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폐쇄됐던(lockdown) 세계에 반

베니스, 럭셔리 브랜드들의 '메세나 무대'

언젠가부터 베니스는 미술 후원의 역사에 있어 남다른 이력을 자닌 럭셔리 브랜드들의 전시 콘텐츠가 돋보이는 무대가 됐다. 이번 바엔날레 기간과 맞물려,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들의 공간에서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공들인 전시를 속속 공개해 베니스를 찾은 예술 애호가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에스파스 루이 비통 베네치아는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컬렉션 소장품 전시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미술관 벽 너머(Hors-les-murs)' 프로그램의 일환이자, 베니스 바엔날레 국제 미술전 병행 전시로 독일 예술가 카티리나 그로세의 새로운 설치 작품으로 〈아몰로, 아몰로〉 전시를 개최한다. 액자와 캔버스의 경계에서 벗어나 확장적 작업을 시도하며 본인의 주 영역인 회화의 다양한 잠재성을 탐구한다. 액자와 캔버스의 경계에서 벗어나 바닥, 벽, 천장, 물건, 심지어 자연경관 자체를 활용해 입체적인 회화 공간을 창조해내는 작가의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풍부한 색채에 빠져들게 만들어 기존의 감각적 · 물리적 지각 방식을 뒤흔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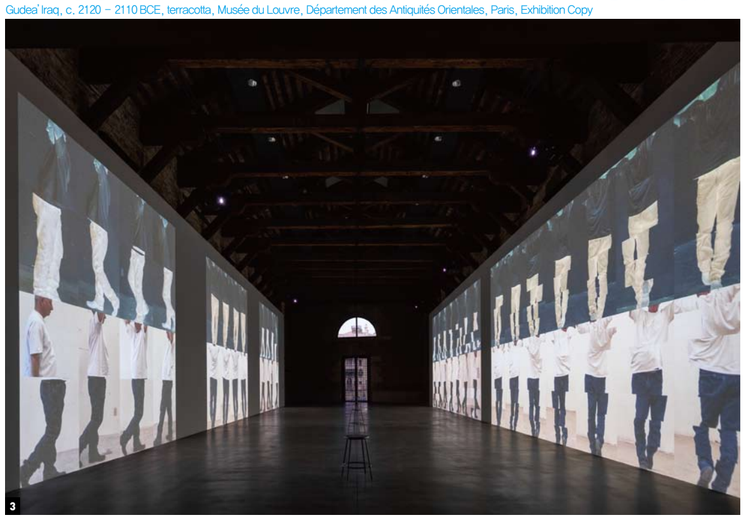
다. 프리뷰를 위해 에스파스 공간을 찾은 카티리나 그로세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제 회화 작업과 연관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행위를 드러내는 사진들이지요. 제 작업은 표면과 질감, 이미지, 물체, 질서와 무질서, 파괴와 창조, 긴장과 이완, 강제성과 자유로움을 유동적으로 넘나들며 전개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카티리나 그로세의 작업은 5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색채의 푸가(La Couleur en Fugue)〉 전시에서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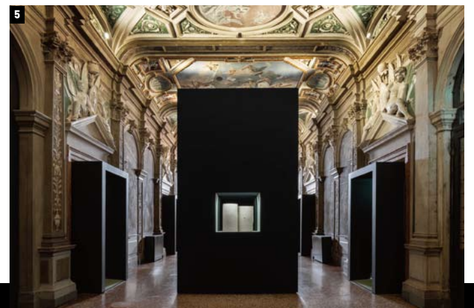
팔라초 그라시의 마를린 뒤피 전시, 푼타 델라 도가나의 브루스 나우만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할 백미다. 오랜 염원이자 과업이던 프랑스 파리 내 피노 컬렉션을 전시할 미술관이 1998년 기능이 종료된 옛 증권거래소(Bourse de Commerce) 건물에 마침내 둥지를 틀어 2021년 5월 개관하기 훨씬 전부터 피노 재단은 베니스에 두 곳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수준 높은 전시 기획으로 메

해 'open'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이내 자신의 작품을 보는 이마다 다채롭게 해석한다는 점에 착안해 'open-end'라는 제목이 탄생했다. 무엇인가의 끝은 결국 시작이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 듯한 제목에 뒤피의 작품을 한참 들여다보는 관람객으로 미술관은 붐볐다.

한편 폰다초네 프라다는 고대와 현대, 학제 간 융합을 꾀한 〈인간의 뇌〉 전시를 내놓았다. 프라다 특유의 연녹색 배경 앞 캐비닛에 신경과학, 고고학, 철학, 심리학, 언어학, 인공지능을 넘나드는 56개록 석학들의 텍스트를 배치하고 그 옆에는 고대 유물, 서적부터 미술 작품과 해부학 도구를 망라한 오브제를 함께 전시해 주목받았다. 여전히 미지의 분야에 머물고 있는 뇌라는 주제를 학구적으로 풀이한 전시는 다른 기업 공간과 사뭇 차별화된 커커이 쌓인 학술적인 내용을 선보였다. 정금형, 이미래 작가의 작품이 초대된 본전시 아르세날레 전시장에서도 다룬 '시이보그의 유혹'이라는 주제 아래 소개에 대한 관심과도 맞닿은 지점이 있어 더욱 흥미롭다. 글 **황다나**(이화여대 Art & Luxury Business MBA 겸임교수)

1, 2 에스파스 루이 비통 베네치아에서 국제 미술전 병행 전시로 선보이고 있는 카티리나 그로세 전시 모습. 카티리나 그로세의 작품은 현재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Fondation Louis Vuitton)의 〈색채의 푸가(La Couleur en Fugue)〉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Photo by 황다나 **3** 푼타 델라 도가나 피노 컬렉션에서 선보인 〈Bruce Nauman: Contrapposto Studies〉 전시. 브루스 나우만의 전시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열린다. Courtesy Pinault Collection **4** 마를린 뒤피의 〈Open-end〉 전시는 팔라초 그라시 피노 컬렉션에서 바엔날레가 끝난 후에도 2023년 1월 23일까지 계속된다. Photo by 황다나 **5** 폰다초네 프라다 베니스에서 개최 중인 〈Human Brains: It Begins with an Idea〉 전시 모습. 오는 11월 27일까지. Photo by Marco Cappelletti Courtesy Fondazione Prada. 가운데 보이는 작품은 'Cylinders of Gudea' Iraq, c. 2120 – 2110 BCE, terracotta, Musée du Louvre, Département des Antiquités Orientales, Paris, Exhibition Copy





*interview with_* 아니카 이(Anicka Yi)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썩는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모든 기념비적인 예술 작품에 대해 의문을 갖고, 가장 작은 생명체를 되살리는 일, 생물체와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감으로 기계와 생명체의 통합 등을 이야기하는 아니카 이(Anicka Yi).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시리즈 〈파운데이션〉의 아름다운 여전사처럼 새하얀 신소재 원피스를 입고 검은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서울 청담동의 전시장에 나타난 작가는 어쩐지 아프리카의 원주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삶과 죽음을 모두 내다보는 예지자 같다고 해야 할까.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오는 7월 8일까지)에 이어 2024년께 리움미술관에서 열릴 전시로도 다시 찾아올 예정인 아니카 이를 만났다.

"예술가가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큰 생태계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문명이 어디로 가는지 더 생각해보는 것." 예술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한다면, 좀 더 본질에 다다른 예술가처럼 느껴진다. 요즘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러브콜을 쏟아내는 아니카 이(Anicka Yi)는 예술로 철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했는데, 실제로 그녀의 작품은 지구의 환경문제, 재난이나 재앙, 역사가 와면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인류의 본질을 둘러싼 질문과 답을 치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구성하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녀의 작업을 파고들자면 공기부터 식물과 아메바 등 수많은 생명체와 화폭반응, 알고리즘, 그리고 AI의 감정까지 이해해야만 할 것 같다. "공기를 조각하고 싶었다"는 아주 추상적인 표현을 자주 하기도 했지만, 실제 아니카 이의 작품은 모든 생물체가 서로 연결된 생태계 풍경을 영화적 기법으로 구현한 듯하다.

지난 5월 말부터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 〈Begin Where You Are〉에 선보인 작품들은 브라질의 이끼존 밀림과 조류 거품으로 뒤덮인 캘리포니아 해안선에서 시간을 보내며 얻은 영감에서 탄생했다. "재료적인 면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열대우림에 있는 풍성한 식물과 아메바 같은 박테리아부터 캘리포니아의 광활한 해안선에서 본 현상들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의 감각적인 관계를 강조했어요. 수많은 곳을 여행하는 동안 새로운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죠. 생물학적인 하나하나의 개체를 생각하면, 이 '감각'이라는 건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식물의 감각이 박제된 듯한 그녀의 신작 '템푸라-프라이드 플라워(Tempura-Fried Flower)' 시리즈는 쉽게 설명하면 작은 꽃을 바삭하게 튀긴 것이다. 기름진 튀김옷을 입고 부패하는 과정 중의 만개한 꽃들이 영구히 멈춘 것 같은 모습을 우아한 형태로 박제했다는 이 작품은 미각, 후각, 침, 땀 등의 감각적 측면을 로맨틱하면서도 불손하게 보여준다고. "탈수된 상태로 소락한 상태를 고정했다"는 작품 설명이 무척 철학적으로 느껴진다. 이와 함께 설치한 '담벼'은 몸을 움직일 때 땀이 나는, 꽃의 성세함과 대비되는 요소인데, "예술은 지성이 아니라 몸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는 게 작가의 의도다. 어쩌면 이 대답은 그녀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시각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다. 후각이야말로 사회적, 정치적 담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한 적도 있듯 그녀는 기계마저도 '감각'이나 '몸'을 통해 세계를 알아간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념비적인 예술 작품에 의문을 갖는 것

런던 테이트 모던이나 베니스 바엔날레에서 선보인 작품을 보노라면 그녀 특유의 '감각' 중심 작업 자체에서도 진화의 면모가 눈에 뜨다. 점점 알고리즘, 기술에 기반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작업 중인 작품도 감각적인 장치를 AI에 적용해 '생물화된 기계'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AI가 단순히 냉담하거나 무뚝뚝하지 않고 감각이나 몸을 통해 세계를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지나 의식론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아는 AI는 인지 능력 위주로 평가되지만, 그들 역시 '몸'으로도 생각한다고 보거든요." 인간, 동물, 기계, 식물의 분류학적 구분에 의문을 갖고 영역 간의 넘나들,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구분을 없애는 작가의 다음 작품은 더 기술적인 것과 생물적인 면의 통합일까? 그녀는

"예술과 과학의 관계성, 예술적인 상상력을 통해 과학적인 연구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더 정직한, 현실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아니카 이는 생물학자, 화학자, 과학자와 다양한 협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간 선보인 많은 작품이(역사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망각된 일을 향이라는 후각 작업으로 드러내기도 했고) 그 간극을 허무는 작업을 선보여왔다. 요즘에는 알고리즘 기반의 작업 때문에 소프트 엔지니어와 일하고, 생물 합성을 연구하는 화학자와도 협업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 작업 방식은 그녀 스스로 '가장 와일드한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과제를 제시한 뒤 그 분야의 최고를 찾아 그들의 실험실을 방문하거나 대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바닷한 맥락에서 자신의 브루클린 스튜디오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촉각적 사고와 조작이 필수, 의사 소통 기술은 카멜레온과 비슷, 직관적인 탐색 기술까지 갖춰야 한다'라는 스튜디오 구인문에 적힌 문구만 봐도 남다른 성향을 잠작할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활동 중인 그녀는 특히 '소통'에 어릴 때부터 남다른 갈망이 있었다고 한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는 예술이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해 영화를 공부하고 패션 일을 하기도 했지만 서른 중반 늦깎이로 미술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성장 속도는 빨랐다. 2016년에 휴고 보스 상을 받고 런던 테이트 모던부터 카셀 도쿠멘타, 바젤 콘스트할레 등 여러 기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아니카 이가 제시하는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미래의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 무척 궁금해진다. 고대의 복잡한 생물학적 감각이 기계와 공존하고, 인간과도 공존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SF물보다 상상력 넘치면서도, 사실은 아주 작은 생명체와 잊힌 이들을 세밀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작접 몸을 부딪혀 찾아가자는 그녀만의 대화법인 듯하다. 글 **감수진**(디블레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 한국 첫 개인전으로 서울 청담동에 자리한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 개최한 전시 〈Anicka Yi: Begin Where You Are〉에서 선보인 작품들. 가장 먼저 '치킨 스킨' 시리즈의 두 작품이 보인다. Installation View, Anicka Yi: Begin Where You Are, Gladstone Gallery Seoul, 2022. © Anicka Yi Courtesy of the artist and Gladstone Gallery Photo: Chunho Ahn **2** 작가 아니카 이가 자신의 작품 'Tempura – Fried Flowers' 앞에서 작품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Photo by SY Ko **3** 'Slippage Between Law and Art'(2022), Installation view, Anicka Yi: Begin Where You Are, Gladstone Gallery Seoul, 2022. © Anicka Yi Courtesy of the artist and Gladstone Gallery Photo: Chunho Ahn **4** 이번 전시에서 아니카 이는 프랑스 출신의 조향사 바나베 비옹과 협업해 직접 제작한 새로운 향수를 바섯 모양으로 감싼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 5월 31일 시작한 전시는 7월 8일까지 이어진다. Photo by SY Ko

Mindscape in our Landscape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마스크 없이 유유자적 산책을 즐기는 소소한 일상을 되찾은 요즘이다.
주변을 정처 없이 거닐다 보면 익숙했던 풍경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독일 철학자 발터 베냐민(Walter Benjamin)은 19세기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표현을 빌려 거리를 배회하며
관찰과 사유를 통해 도시를 경험하는 '산책자(flâneur)'의 개념을 정립했다. 산업혁명 이후 급변한 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산책자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근대적 삶에서 느린 속도와 여유를 가지고 삶의 풍경 속에 감춰진 것을 발견하고자 했다. 자신을 주체적인 관찰자로 설정한 이들은 산책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텍스트를 읽어내고 고찰한 학자이자 예술가였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며 감각했던 산책자처럼,
〈스타일 조선일보〉의 '지상(紙上) 갤러리'에서 소개하는 다음 4명의 아티스트는 각자의 방식으로 관찰한 동시대 일상 풍경의 단면을 펼쳐 보인다.

Exhibition Concept **고성연** 글 · 기획 **김연우**(독립 큐레이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한 북쪽(To the North for Nonexistence)', 2019, Single Channel Video, Stereo Sound, 16'53"

김세진 Sejin Kim

익명으로서의 개인

● 차별하면서도 무료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갑작스레 찾아오는 쓸쓸함과 불안함.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느껴본 적 있는 감정일 것이다. 애초에 자본과 권력, 규율과 통제를 바탕으로 인공적으로 형성된 '도시'라는 장소는 자연스레 그 안의 개인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띤다. 학교나 회사 등처럼 생성되는 공동체에서, 또는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과 매일 마주하게 되는 거리에서, 군중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가는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고립되기 마련. 이러한 사회의 고독한 단면은 일상의 거리에서, 혹은 여행을 떠난 곳에서 우연히 드러나곤 한다. '나잇 와치'에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도시의 밤 풍경이 펼쳐진다. 영상의 중앙부에는 지하도를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왼쪽에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 중인 사람들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밤거리를 밝혀주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뿌옇게 화면을 채운다. 일상적인 도시의 풍경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걸인 연주자의 구슬픈 하모니카 음색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독을 섬세하게 어루만진다.

●● 과잉 작동하는 도시에서 팔연적으로 생성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노동의 면모는 누군가의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수단인 동시에 이들을 도시의 이방인으로 만들곤 한다. '야간 근로자'에서는 24시간 끊임없이 가능하는 도시의 시스템이 낳은 주변인의 일상에 주목한다.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자와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으로 일하는 여자의 밤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으로 채워지고, 퇴근하는 길에 마주하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쏟아지는 햇살은 그들에게 하루의 끝을 알린다. 그들의 시간을 차지한 어둠과 대조되는 환한 빛으로 가득 찬 도시의 하루에서 두 사람은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 도시의 어둠 속에 존재하는 이들의 일상은 쏟아지는 햇살만큼이나 날카롭게, 그럼에도 담담하게 현대사회의 이면을 비춘다.

●●●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한 북쪽'은 작가가 라플란드 지역을 여행하며 우연히 만난 사미족 여인 아니타 갑발의 사연을 통해 현재에도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외 현상을 좀 더 거시적으로 다룬다.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변화되어가는 사회에 수용되지 못하는 토착 원주민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 관찰하게 되는 현대인들의 외로운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는 듯하다.

(위) '나잇 와치(Night Watch)', 2006, 3 Channel Video, Stereo Sound, 3'20"
(아래) '야간 근로자(Night Worker)', 2009, 2 Channel Video, Stereo Sound, 6'58"

이미지 제공 갤러리 숲, 송은문화재단
©SONGEUN Art and Culture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The Temperature of Barcelona', 2022, Acrylic and Photo-collage on Canvas, 160 x 160cm

'Rain Drops with Purple Sunlight', 2022, Acrylic and Photo-collage on Canvas, 182 x 182cm

이희준 Heejoon Lee

도시의 기하학

● 이희준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행지에서 수집한 도시 풍경의 이미지를 기호화해 자신만의 디지털로 화면을 조성한다. 균일한 듯 제각각인 도시 속 건축물은 서로 다른 수직, 수평의 비례와 같은 조형적 요소로 단순화되어, 넓은 색면이나 도형의 형태로 캔버스 위에 층층이 쌓아 올려진다. 빈 캔버스를 채우거나 사진 이미지 위에 겹쳐진 두꺼운 미디엄은 아크릴 겔과 물감을 섞어 보다 진한 점성을 띠게 만든 재료다. 직접 제작한 스퀴지(squeegee)를 사용해 캔버스에 물감을 입히는 작가의 회화적 개입은 회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연상시킨다. 화면에 더해지는 점, 선과 같은 조형적 요소는 먹선, 무게 추, 평행선과 같이 실제로 건축 도면이나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상상하며 남긴 흔적들이다.

●● 도시의 건축물은 작가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소재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공간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다시 꺼내보며 경험과 기억에 기반한 재미있는 요소를 발견한다. 'The Temperature of Barcelona'는 유럽 여행 중에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보고 1백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한 현대성을 느낀 경험에서 비롯된 작업이다. 이후 이러한 역사적인 건축물에 사용된 소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유행 카페에서 사용되는 걸 보며, 오늘날 생활에서도 여전히 찾을 수 있는 모더니즘의 흔적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흥미로운 연결 지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시작한 'A Shape of Taste' 연작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건축물의 모습에서 시대의 취향과 감각을 읽어내고자 했다. 서울 사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지역의 리모델링 건축을 소재로, 오래된 건물의 표피에 새로이 쌓이는 패널이나 페인트층을 관찰해 작업에 반영했다.

●●● 추상화된 도시의 풍경이 펼쳐진 캔버스를 보고 있자니 문득 예전에 어딘가에서 읽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경구가 머릿속을 스친다. 'Less is More.' 간결하고 '시적인(poetic)' 작업으로 대표되는 그의 건축 철학을 더없이 잘 설명하는 말로, 단순성의 미학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건축과 디자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과연, 구체적인 원형과 세부적인 요소가 지워진 모습으로 재구성된 화면 속 도시의 건축물에서 오히려 공간을 가득 채운 리듬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듯하다.

이미지 제공 갤러리 숲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A Shape of Taste no.40', 2022, Acrylic on Canvas, 53 x 53cm

권아람 Ahram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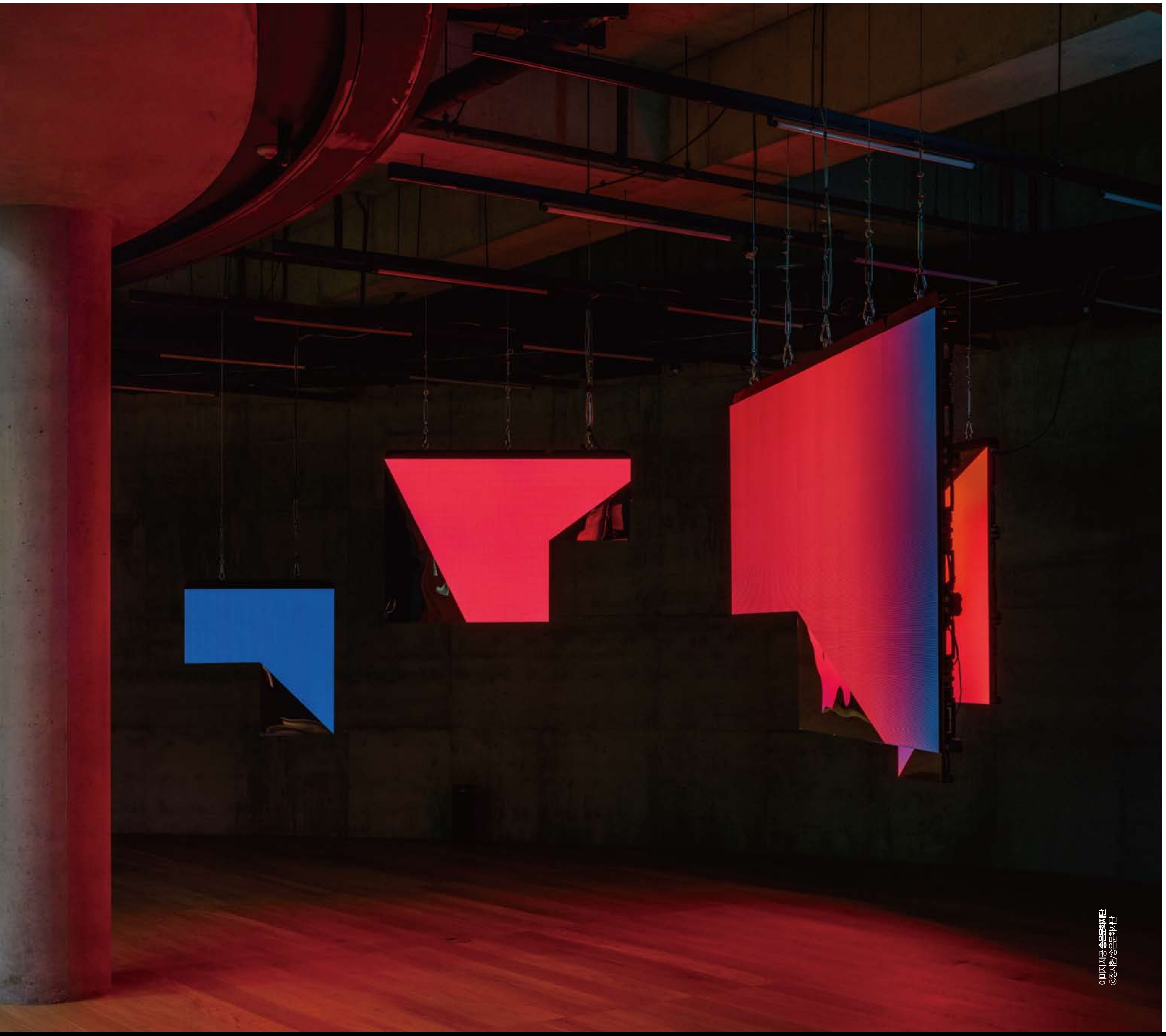
미디어의 경계에서

● 아침이면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밤사이 와 있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SNS의 시시콜콜한 소식을 살펴보며 잠시 나른한 시간을 보내다가, TV와 인터넷의 각종 뉴스를 접하며 회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로 둘러싸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인류를 가상현실로 이끈 4차 산업혁명,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또 다른 나 자신인 '부캐'가 살아가는 삶을 선사했고, 팬데믹을 거치며 달라진 삶의 풍경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시켰다. 우리가 스크린이라는 매체를 통하지 않은 채 세상에 접속해 있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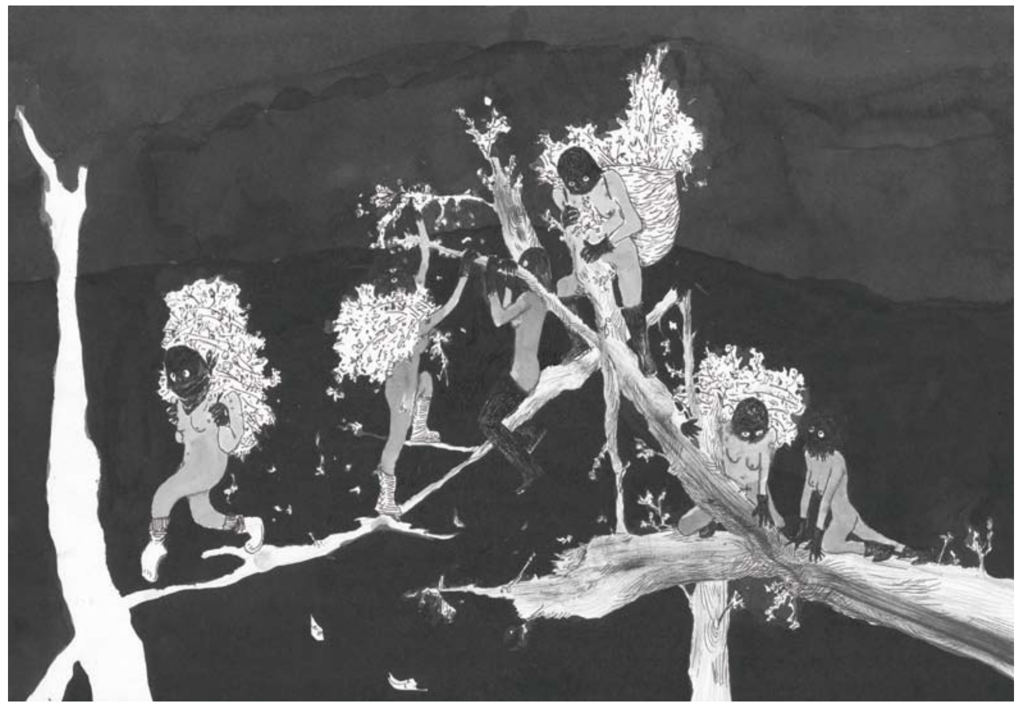
●● 흔히 미디어를 '세상을 비추는 창'이라 부른다. 백과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미디어란 '매개'를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로 어떠한 작용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을 의미하는데, 그런 면에서 미술사의 시작을 장식하는 선사시대의 동굴벽화를 최초의 미디어로 들기도 한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인쇄물 중심의 미디어에서 점차 스크린 중심으로 변화해온 것뿐, 미디어는 인류의 등장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왔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캐나다의 학자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은 그의 저서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에서 모든 미디어가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킨다고 했다. 미디어를 통해 개인에게 전달되는 정보나 이미지는 수용자에게 인식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감정을 일으키거나, 나아가 행동으로 이어질 만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 반사되는 거울의 표면에 비친 관람자의 모습 위로 깜박이며 변화하는 색면 스크린 파편을 거니는 경험을 선사하는 '월스'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방식을 은유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컴퓨터의 오류 화면을 상징하는 '죽음의 블루 스크린'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화면은 과연 현세대의 미디어가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오작동으로 멈춘 스크린이 '전달'이라는 고유한 능력을 잃고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순간,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미디어 속 세상이 과연 우리의 현실이 맞는지 질문하게 된다.

'월스(Walls)', 2021, 4 Channel Continuous Video, Sound, LED, Acrylic Mirror, Dimension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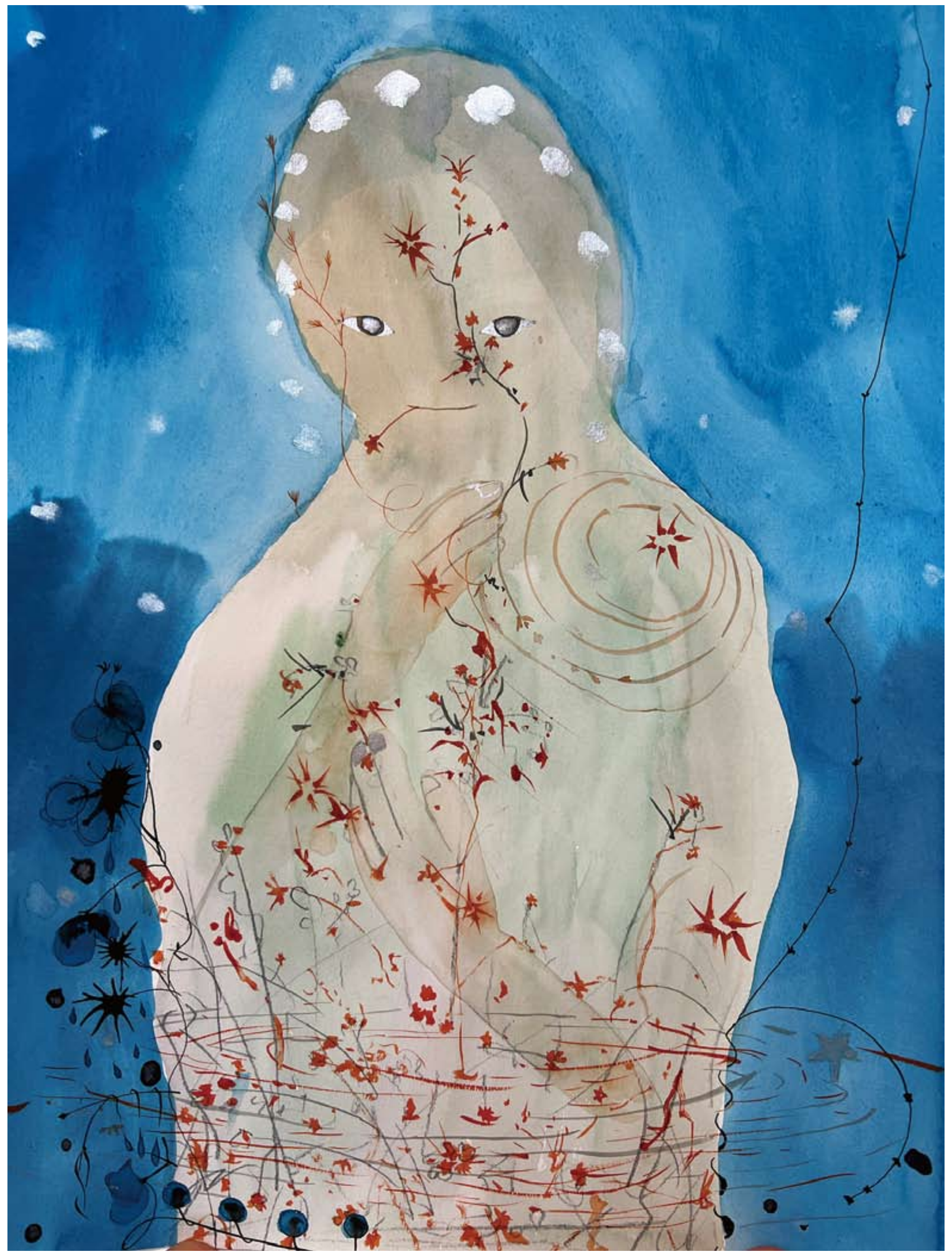


이미지 제공 송은문화재단
ⓒ정지현/송은문화재단



'flower thieves_group raid(not for fun)', 2019, Sumi Ink, Pen, Pencil on Paper, 350 x 240mm

이미지 제공 김정아 작가, 김리아갤러리
Courtesy of the Artist and Kimreeaa Gallery



'습지에서(in wetland)', 2022, Watercolor, Red Sumi Ink, Acrylic on Paper, 295 x 4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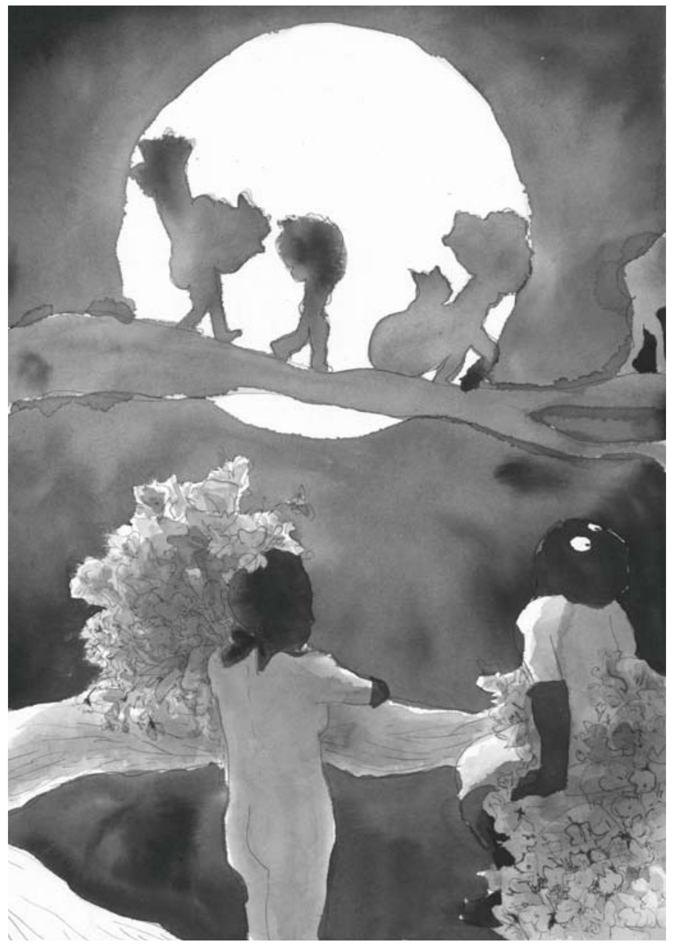
김정아 Jung ah Kim

감정이 발화되는 풍경

●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여러 명의 여인이 바쁘게 어디론가 향한다. 자세히 살펴보니 알몸에 검정 장갑과 부츠만 착용한 채 힘을 합쳐 커다란 꽃 더미를 운반하고 있다.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꽃을 따서 훔치는 이들의 정체는 작가의 상상 속에서 탄생한 '꽃도둑'들이다. 수십 점의 드로잉으로 이루어진 '꽃도둑' 연작은 공방에서 쓰고 남은 자투리 종이에 그때그때 사용 가능한 재료로 작업한 흑백 그림이다. 작가는 먹을 담은 병과 펜, 종이를 들고 다니며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종이의 사이즈가 모두 제각각인데, 오히려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춰 장면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와 사건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 물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데는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이나 개연성이 반드시 동반되지는 않는다. 삶이 그러하듯, 각 컷이 품고 있는 그 순간의 감상에 충실하면 되기에.

●● 김정아의 작업은 작가가 경험하고 감각하는 내면의 여러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오랜만에 겉모습과 사용하는 언어가 비슷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 작가는 우연한 계기로 그동안 막연히 갈구해 온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처음 느껴본 따뜻하고 원초적인 평등함은 이후 서로 연대하며 '용기'를 얻고 미지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꽃도둑들의 모습으로 발현되었다. 두려움, 희망, 좌절, 용기 등,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감정은 작가가 일상에서 익숙한 풍경을 조우하는 특정한 순간에 발화되어 그림으로 옮겨진다.

●●● '습지에서'는 산책 중 관찰하게 된 작업실 근처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한 추상화 연작이다. 중앙부에 언뜻 보이는 눈동자 형상은 관람객을 응시하듯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는데, 마치 작가의 습지 속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작가는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실제 풍경 그대로의 사실적인 재현을 지양한다. 대신 매일 같은 장소를 방문하며 매번 경험하는 감각과 인상을 그날그날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린다. 흙, 물과 함께 뒤엉킨 각종 자생식물이 번식하고, 시들고, 다시 자라나는 과정에서 축적되고 순환되는 습지와 같이, 작가의 내면이 투영된 캔버스 위의 습지도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겹으로 층층이 쌓여가며 천천히 완성된다.



'flower thieves_silhouette_moonrise', 2019, Sumi Ink, Pen on Paper, 343 x 235mm

〈히토 슈타이얼—데이터의 바다〉展

이것이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다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작가이자 영화감독, 비평가, 저술가인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그동안 베니스 비엔날레(2019, 2015, 2013), 카셀 도쿠멘타(2007), 파리 퐁피두 센터(2021) 등에서 전시를 열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아왔고,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지난겨울 아시 차게 선보인 또 다른 베를린 기반의 아티스트 아이웨이웨이에 이어 올여름에는 '히토 슈타이얼'을 내세웠다. 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개인전으로 작가의 초기 영상 작품부터 디지털 기반의 데이터 사회를 성찰하는 주요 작품을 아우르는 대표작 23점을 접할 수 있다. 디지털 사회의 이면과 그 속에서 생산되는 이미지의 새로운 문법을 추적하고 기술, 자본, 예술, 사회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 비평적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과 저술 활동으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온 작가의 면면을 심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밀도 있는 작품이 전시 공간을 구석구석 채우고 있기에 '시간'도 '품'도 많이 들지만 마치 영화 세트 같은 이색적인 관람 환경으로 그 '노고'를 달래준다. 오는 9월 18일까지. / 편집자 주

필립 코프먼의 1978년 영화 〈외계의 침입자(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에는 이제껏 인간이 보지 못했던 신비한 식물이 등장한다. 샌프란시스코에 내리는 비에는 외계에서 온 식물의 씨가 섞여 있었다. 이 씨는 분홍색 꽃을 피운 예쁜 식물로 자라나 사람들의 몸을 복제하는데, 사람들의 겉모습뿐 아니라 기억과 정신을 모두 복사해버린다. 이 복제인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 복제 인간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SF 영화의 흔한 클리셰이지만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지점을 발견한 이들이 있다. 영국의 문화비평가 마크 피셔는 자신의 저서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복제용 씨앗을 재배하는 부둣가 공장을 주목했다. "인간이 자동화된 시스템 간의 보이지 않는 연결기로만 존재하는 컨테이너항과 펠릭스토우의 항구가 효과적으로 대체하게 된 오래전 런던 부두의 떠들썩함 사이의 대조는 자본 사십 년 동안의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대해 많은 부분을 말해준다. 항구는 금융자본이 이룬 승리의 흔적이며, '비물질화된' 자본이라는 착각을 가능케 하는 육중한 물리적 기반 시설의 일부이다. 이는 현대 자본의 단조로운 광택 밑면에 존재하는 으스스한 것이다." (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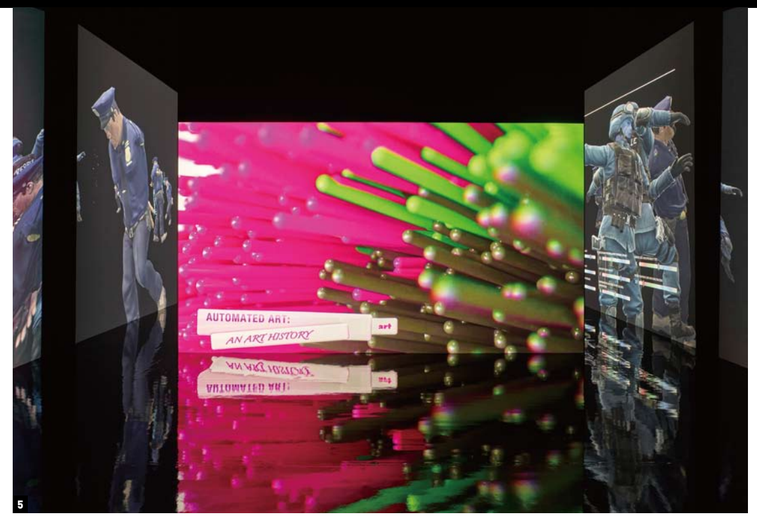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자주 꼽히는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1966~)만큼 현대사회의 난제에 탁월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는 드물다. 그녀는 지구 내전, 불평등의 증가, 독점 디지털 기술 등 지구 곳곳에 산재된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들을 현미경처럼 미세하게 들여다본다. 자본주의, 파시즘, 역사, 미술 제도, 이미지, 재현, 주체, 실재, 사물이라는 작가의 키워드는 우리의 현재이자 과거, 미래를 예측하게 만드는 언어다. 그런데 슈타이얼은 자신의 힘으로 모순을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지난 4월 말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관에서 열린 공동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다. "20세기 인류의 역사는 외계인들만이 알 것입니다. 지금도 외계인 고고학자가 지구인이 라디오 송출처럼 내보낸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 데이터들은 우주 어딘엔가 기록 쌓여 있을 것입니다." 지구인이 쌓아놓은 이 지독한 난제에 질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히토 슈타이얼을 보면 그녀가 외계에서 보낸 외계인 고고학자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마저 든다.

인공지능, 예측 알고리즘, 미래 예견 프로그래밍에 대한 제언

고인이 된 마크 피셔가 만약 살아 있다면 신경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이 예견한 미래 정원에 관한 이야기인 슈타이얼의 작품, '이것이 미래다(This is the Future)'(2019)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현재 MMCA 서울에서 진행 중인 〈히토 슈타이얼—데이터의 바다〉展에서 이 작품이 설치된 전시장에 들어서면 'If you use the extract, it will poison autocrats'라는 부드럽고 매혹적인 AI 음성이 들린다. 꽃 추출물을 사용하면 독재자를 독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이 미래다'는 전시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다채널 비디오 설치물인 '미션 완료: 벨란시지(Mission Accomplished: Belanciege)'가 포함된 3부작 전시의 일부다. 초자본주의, 세계화, 디지털화, 증강현실 및 데이터 마이닝 등 그녀가 탐구하는 문제 중 일부분을 담고 있다.

'이것이 미래다'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주인공 헤자(Heja)의 이야기를 다룬다. 쿠르드족 여인 헤자는 감옥 앞마당에 날리는 씨앗을 잡아 종이 위에 싹을 틔웠지만 교도관들은 이 씨앗을 모두 없애버렸다. 이후 신경 네트워크는 미래에 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헤자는 미래 정원에 꽃을 숨겨버린다. 미래 정원의 식물들은 SNS 중독으로 뇌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거나, 독재자를 독살하기도 하는 등 미술적인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 전시장 안쪽에 자리한 또 다른 멀티채널 비디오 작품 '파워 플랜츠'는 인공지능, 예측 알고리즘, 미래 예견 프로그래밍에 의해 재생된 꽃과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꽃들은 0.04초 뒤에 자신의 미래를 예측한다. 불확실한 미래의 장후이자, 가짜 뉴스에 대한 언급을 통해 결국 헤자는 관객이자 보편적인 개인임을 깨닫게 된다. 자연과 도시 풍경의 기이한 이미지, 최근 독일의 극우 시위를 포함한 시건 영상을 통해 극우의 부상, 지구온난화를 예측하지만 무시되는 현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안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암담한 현재의 비전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슈타이얼의 작품은 우리를 끝없이 불편하게 만든다. 그녀는 이렇듯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이미지, 사운드, 에세이, 강연, 멀티미디어 설치 등을 활용해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강력한 스토리텔러다. 가속화된 글로벌 자본주의와 디지털 사회, 포스트 인터넷 시대 이미지의 존재론과 그것의 정치 ·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면서 미디어, 이미지, 기술에 관한 주요한 논점을 제시해왔다. 이번 MMCA 서울 전시는 작가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으로 거의 30년에 걸친 작업 중 '독일과 정체성'(1994)과 '비어 있는 중심'(1998) 등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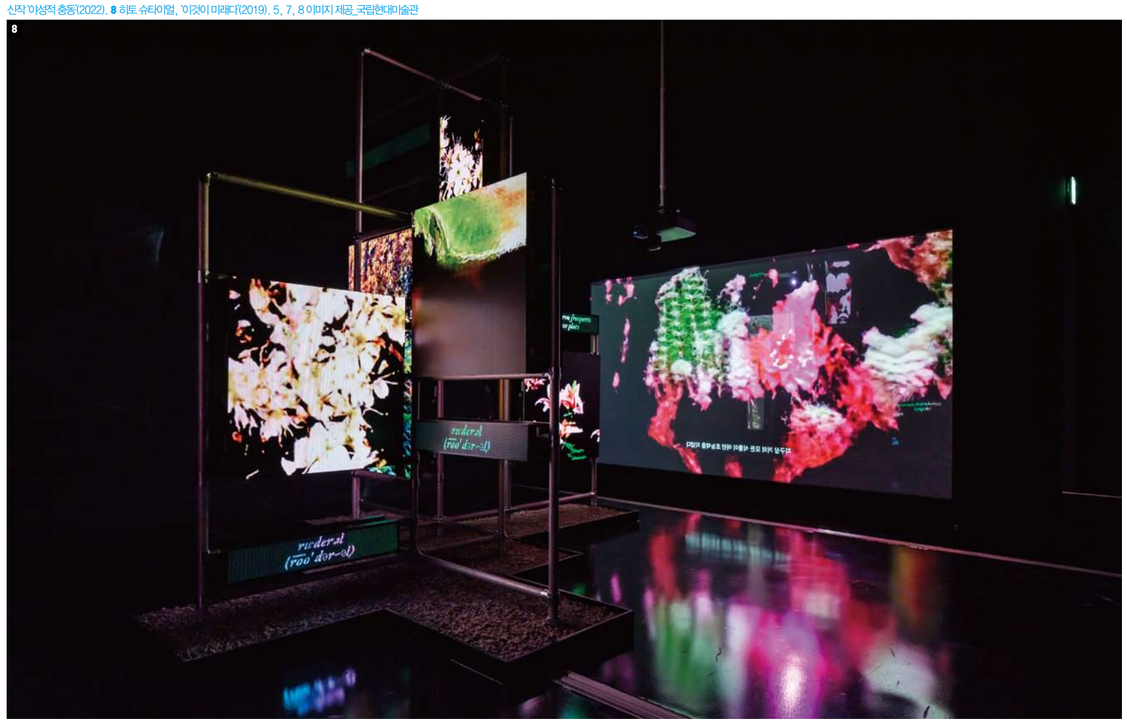


있는 중심', '독일과 정체성', '11월'(2004) 등의 작품을 통해서는 작가의 예술적 태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작품의 면면도 존재감을 뿜어내지만, 관람 환경 자체도 주목할 만한다. 각 비디오에 대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객석까지 하나의 설치 작품처럼 연출해 특별한 관람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 통일 이후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등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작가의 초기 다큐멘터리적 영상 실험인 '비어 관 전시관에서 선보인 '태양의 공장'은 해변의 비치 의자에 누워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상과학 매트릭스로 빨려 들어가도록 만든다. 글로벌 이민과 재정적 불평등을 다룬 비디오 '유동성 주식회사(Liquidity Inc.)'(2014)도 푸른 물결 모양의 편안한 좌석이 설치된 공간에서 볼 수 있다.

히토 슈타이얼의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조금 헷갈리는 지점에 도달하곤 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현실이 아니고 매트릭스 공간이라면? 우리를 통제하는 빅브러더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래도 그녀가 던지는 질문들을 다등자면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누가 그 권력에 의해 학대를 받는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글 **천수림**(미술비평)

1 〈히토 슈타이얼—데이터의 바다〉 전시 모습(2022). 사진_홍철기, 이미지 제공_국립현대미술관 **2, 3**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선보이고 있는 히토 슈타이얼 기획전은 작가의 주요 매체인 영상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트렌디한 관람 환경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 제공_국립현대미술관 **4**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손꼽히는 히토 슈타이얼. © photographer Leon Kahane **5** 히토 슈타이얼, '소셜심'(2020). **6** 히토 슈타이얼, '미션 완료: 벨란시지(Mission Accomplished: Belanciege)'(2019). Photo by 천수림 **7** 히토 슈타이얼의 신작 '야생적 충동'(2022). **8** 히토 슈타이얼, '이것이 미래다'(2019). 5, 7, 8 이미지 제공_국립현대미술관



Remember the EXHIBITION

수년째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19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바깥 활동이 한껏 자유로워지면서 갖가지 축제와 행사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달궈질 대로 달궈진 미술계 역시 그 대열에 합류했는데, 올가을에 세계적인 아트 페어 '프리즈'가 서울에 착륙한다는 소식 때문인지 동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개인전은 물론이거니와 장-미셸 오토니엘, 톰 삭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등 미술 애호가라면 이름만 들어도 반길 만한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고 있다.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화려한 라인업에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다. 그러니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걸 누리고 싶다면, 보다 영리하게 계획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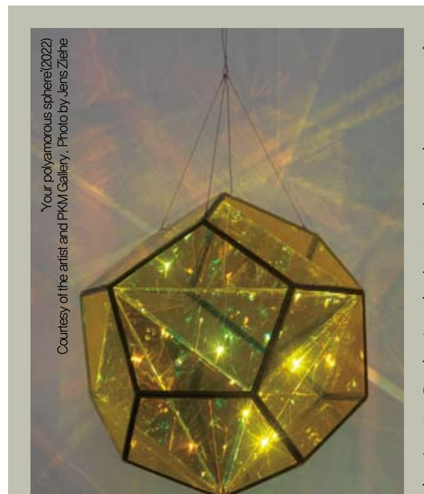
'황금 연꽃'(2019), 스테인리스스틸, 금박, 150 × 160 × 145cm © Othoniel Studio / Jean-Michel Othoniel Adagp, Paris, 2022

덕수궁 정원에 핀 황금 연꽃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장-미셸 오토니엘 : 정원과 정원〉

산책길에 영롱하게 빛나는 유리구슬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프랑스 작가 장-미셸 오토니엘이 2011년 퐁피두 센터 이후 최대 규모의 전시를 서울에서 선보이고 있다. 2000년 파리 지하철 개통 1백 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야행자들의 키오스크'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그는 예술과 작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 전시 역시 2000년 초반부터 이어온 야외 설치 작업의 연장선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과 야외조각공원, 그리고 덕수궁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덕수궁 연못에 피어난 황금색 조각들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반짝거리며 옛 궁궐의 정원을 휘감고, 서울시립미술관 야외조각공원에 초록 잎 사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황금 목걸이'와 전시장 바닥을 반짝이는 호수로 물들인, 유리 벽돌 7천여 개로 이루어진 '푸른 강'은 익숙한 공간을 황홀하게 탈바꿈시킨다. 이외에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은 총 74점으로, 덕수궁 관람 후 서소문 본관 야외조각공원을 거쳐 전시장으로 가는 동선을 추천한다. 모든 전시가 무료이니, 황금빛 정원을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전시 기간 8월 7일까지 **문의** sema.seoul.go.kr


'Your polyamorous sphere'(2022) Courtesy of the artist and PKM Gallery. Photo by Jens Ziehe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법

PKM갤러리 〈올라퍼 엘리아슨 : Inside the new blind spots〉

보고 있으면 신비롭고 아름다워 순간 몰입하다가 어느덧 깊은 사유로 우리를 이끄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들. 2017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술가'로 크리스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는 올라퍼 엘리아슨은 수상 타이틀 그대로 예술이라는 매개로 철학, 수학, 과학, 건축,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관통하며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뮤지엄 안에 붉고 커다란 태양을 재현하거나 도심 한가운데 진짜 빙하를 가져다놓고, 전기가 필요한 국가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전방위로 활동한다. '새로운 사각지대 안쪽에서'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볼 수 없는 것에서 불확실성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관람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시야를 열어준다. 또 회화, 조각, 판화, 설치 작업을 비롯해 엘리아슨의 주요 출판물 39점을 열람하는 공간을 마련해 그의 전반적 예술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전시 기간 7월 30일까지 **문의** www.pkmgallery.com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연 워커힐 시어터

빛의 시어터 〈구스타프 클림트, 골드 인 모션〉

프랑스에서 시작된 '빛의 시리즈'는 버려진 채석장 같은 오래된 장소를 거장들의 예술 작품을 시청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는 문화 재생 콘셉트의 전시다. 2018년 제주에 숨겨진 옛 국가 통신 시설이었던 벙커를 개조해 선보인 몰입형 미디어 전시 '빛의 벙커'를 이제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선택한 장소는 벙커가 아닌 서울의 오래된 극장이다. 50여 년간 국내 공연 문화계의 상징적 장소로 일컬어지는 워커힐 시어터를 거대한 미디어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빛의 시어터'가 바로 그것. 이번 전시에서는 20세기 황금빛 색채의 화가로 불리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빛과 음악으로 새롭게 해석했는데, 대표작 '키스', '유디트', '생명의 나무' 등을 비롯해 클림트가 전 생애에 걸쳐 창작한 명작을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상영 시간은 총 60분으로, 앞서 언급한 클림트의 작품들에 이어 울트라머린 컬러 작품으로 유명한 이브 클랭의 '인피니트 블루', 영화 제작자이자 음악가 토머스 번스의 '벌스'와 우리 기억의 본질을 성찰하는 '메모리즈' 등 컨템퍼러리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전통적인 공연 극장이 갖춘 샹들리에 조명과 무대장치 등 공간적 특색을 살려 '빛의 벙커'와는 또 다른 웅장하고 압도적인 규모의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전시 기간 2023년 3월 5일까지 **문의** www.deslumiere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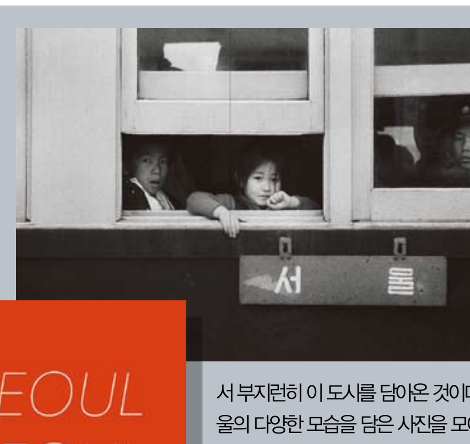
'Ignition'(2007–2010), ConEd barrier, plywood, latex paint, propane, steel, mirror, mixed media

웰컴 투 톰 삭스 월드!

타데우스 로팍 〈로켓 팩토리 페인팅〉, 아트선재센터 〈톰 삭스 스페이스 프로그램: 인독트리네이션〉, 하이브 인사이트 〈톰 삭스: 붐 박스 회고전〉

나이키와 협업했고 빅뱅의 지드래곤이 신기도 했던 한정판 스니커즈가 중고 시장에서 2,137%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는 작가. 톰 삭스에 관해 아는 것이 이게 전부라면,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그의 대규모 개인전에 주목하자. 이번 전시는 유례없이 서울의 각기 다른 성격의 세 공간에서 개최되는데, 젊고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소개해온 전통적인 사립 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대형 연예 기획사 하이브가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 하이브 인사이트, 작년에 서울 한남동에 문을 연 글로벌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이 바로 그곳들. 종로에 위치한 아트선재센터에서는 그가 2007년부터 진행해온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다섯 번째 전시로 톰 삭스 스튜디오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용산 하이브 인사이트에서는 장소의 특성에 걸맞게 음악을 주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발전시킨 붐 박스 시리즈를 선보인다. 또 한남동 타데우스 로팍에서는 로켓 발사 퍼포먼스, NFT 작품을 현실로 끌어와 재탄생시킨 회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조각이라 말한 톰 삭스는 스스로 '아티스트'보다 '조각가'라 불리길 원하는데, 손에 잡히는 물질성을 중시하기 때문인지 그의 작품은 현실에 가까이 있으며 관람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이번 개인전은 마치 테마파크처럼 각각의 공간마다 주제와 색이 뚜렷해 톰 삭스 팬이라면 그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전시 기간 각각 8월 20일, 8월 7일, 9월 11일까지 **문의** ropac.net / artsonje.org / www.hybeinsigh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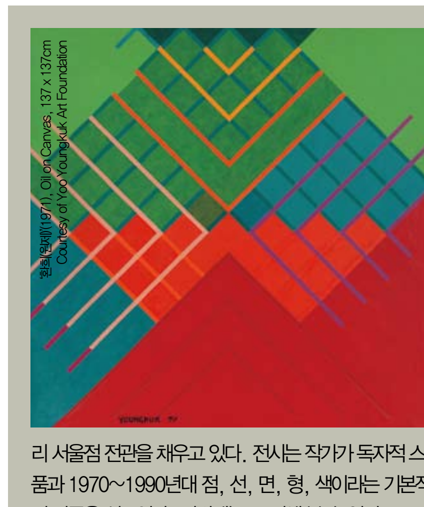


서울 다큐멘터리

옵스큐라 갤러리, 주명덕 작품집 〈SEOUL〉 출간

과장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록해온 사진작가 주명덕. 1940년 황해도 출신인 그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서울이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을 지켜봐왔다. 1960년대 전후의 가난했던 소도시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2000년대 복잡하고 화려한 대도시가 되기까지 그 소용돌이 안에서 부지런히 이 도시를 담아온 것이다. 얼마 전, 그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켜본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모아 〈SEOUL〉을 출간했다. 1백10여 점의 작품이 담겨 있는 사진집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뉜다. 20~30대 젊은 시절, 아직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질서 없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활기찼던 1960~1970년대 서울, 그리고 비교적 근래인 2000년대 이후 도시의 모습을 갖춘 딱딱하고 정적인 서울이다. 이 중에서 1960년 비 오는 서계동과 종로, 2000년대 황학동과 홍대, 기지촌을 담은 작업은 이번 사진집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이다. 사진집 출간을 기념해 지난 5월에는 성북동 옵스큐라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문의 www.obscura.or.kr


'회화(원지)'(1971), Oil on Canvas, 137 × 137cm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tion

'점선면색'으로 이뤄진 유영국의 세계

국제갤러리 서울점 〈Colors of Yoo Youngkuk〉

얼핏 기하학적 원색 도형으로 이루어진 추상화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아한 산의 능선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겹겹이 쌓인 산맥을 펼쳐놓은 것 같기도 하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유영국의 주요 작품을 총망라하는 작고 20주년 기념전이 미술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8년 이후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두 번째 개인전으로, 시기별 대표 회화 작품 68점과 드로잉 21점, 그리고 추상 작업의 일환이자 새로운 기법을 시도한 1942년 사진 작품, 작가의 활동을 기록한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갤러리 서울점 전관을 채우고 있다. 전시는 작가가 독자적 스타일을 구축하기 시작한 1950~1960년대 초·중반 작품과 1970~1990년대 점, 선, 면, 형, 색이라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가 균형을 맞추며 완숙기에 이르는 중·후기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에는 그 전엔 볼 수 없던 1940년대 사진 작품이 포함돼 있는데, 유영국을 대표하는 색면 추상 회화 작품과 함께 전시돼 자연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예술적 영감의 원천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국 1세대 모더니스트의 작품 세계와 그 변화 과정을 한자리에서 감상해보자. 더불어 부산점에서는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젊은 작가 이희준의 첫 개인전 〈Heejoon Lee〉가 8월 14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기간 8월 21일까지 **문의** www.kukjegallery.com

글 **김민서** 크레딧 정리 **신정임**

'얼음 위를 걷는 사람(Eisläufer)'(2021), © 안드레아스 거스키, 스푸르스 마거스 제공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안드레아스 거스키〉

고층 빌딩, 아파트, 공장 등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공간의 순간을 포착해 인류와 문명에 관해 깊이 고찰해온 안드레아스 거스키의 국내 첫 전시. 그는 사람이 가득 뒤엉킨 시카고 선물거래소와 물건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 아마존 물류 창고 등 원거리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조합하고 편집해 새로운 장면을 창조한다. 이는 낯설지 않은 현대의 공간이지만 어쩐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번 전시에는 '파리, 몽파르나스', '99센트' 등 1980년대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40여 년에 걸친 그의 작품 세계 전반을 볼 수 있으며,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신작 '얼음 위를 걷는 사람', '스트레이프'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8월 14일 **문의** apma.amorepacific.com

예술의전당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일상의 오브제가 가장 특별하며,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이 예술이라 말하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1970년대 초기작부터 2022년 신작까지 그의 예술 인생을 총망라하는 1백5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탐구, 언어, 보통, 놀이, 경계, 결합 등 크게 6개의 주제로 나뉘며, '세계 최초 대규모 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개념 미술의 대표작 '참나무'부터 디지털 자화상과 스페셜 판화, 로비의 거대한 월 페이퍼 등 이번 전시만을 위해 제작한 작품이 있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전시 기간 8월 28일까지 **문의** www.sac.or.kr

김환기(1913–1974), '작품'(1950년대), 하드보드에 유채, 54.0 × 26.0cm, 광주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느 수집가의 초대〉 등

'예약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관람을 놓쳤던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이 지난 4월부터는 '어느 수집가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대표작으로는 18세기 백자 달항아리, 김환기의 1950년대 작품,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등이 있다. 귀한 서화도 포함되는데, 빛에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고서화를 보존하고자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추성부도', 박대성의 '불국설경', 이경승의 '나비' 등 매달 주요 작품을 교체한다. 또 고려불화는 첫 2개월간 '수월관음보살도', 다음 2개월간은 '천수관음보살도'를 선보여 방문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다. 한편 특별전시실에서는 마야,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3대 문명 중 하나인 아스테카를 조망하는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이 진행 중이다.

전시 기간 모두 8월 28일까지 **문의** www.museum.go.kr

'Tuanus'(2000), Oil on Canvas, 252 × 368cm

스페이스K 서울 〈나의 미치광이웃〉

독일을 대표하는 회화 작가 중 한 명인 다니엘 리히터의 개인전.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이미지를 재해석해 표현하는 그는 끊임없이 작품의 변화를 추구하며 추상과 구상 사이에서 단단한 예술 세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번 전시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온 20여 년간의 여정을 소개한다. 전시 제목 '나의 미치광이웃(My Lunatic Neighbar)'은 'Neighbor(이웃)'의 알파벳 철자를 의도적으로 바꿔 작가 특유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전시 기간 9월 28일까지 **문의** www.spacek.co.kr

이미지 제공_부산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한국현대미술작가조명 IV – 이형구〉 등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지점에 위치한 작가를 소개하는 한국현대미술작가조명전의 네 번째 주인공으로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바탕으로 '몸'에 관한 주제 의식을 이어가는 이형구를 조망한다. 초기작 'The Objectuals' 시리즈부터 해부학적 접근법으로 표현한 'ANIMATUS' 시리즈, 보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몸의 감각을 탐구한 'Eye Trace' 시리즈와 2022년 신작 'Pink Vessel'까지 1백여 점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인체 모형, 오브제, 해부학 서적 등 아카이브를 통해 이형구의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적극적인 관객 참여를 이끄는 〈나는 미술관에 ●● 하러 간다〉와 〈각진 원형: 김용관〉 등도 동시에 열리고 있다.

전시 기간 8월 7일까지 **문의** art.busan.go.kr

'Ader'(2022), Acrylic and Resin on Canvas, 180 × 175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페로탕 서울 베르나르 프리츠 〈LES DERNIÈRES PEINTURES〉

프랑스 현대 회화를 대표하는 베르나르 프리츠의 2022년 신작을 만날 수 있다. 지난 45여 년 동안 자신만의 개념적 추상 회화를 전개해온 그는 '추상'이라는 어려운 관념적 언어를 캔버스 가득 화려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질로 표현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생성과 소멸, 탄생과 죽음 등 상반된 두 개념처럼 화려한 색채 뒤의 고요함이 느껴진다. 특히 이번 신작들은 73세 거장의 지난 예술적 행보의 완성된 현재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직과 수평, 반복적인 붓의 궤적 등 이전 작품에서 보여준 모습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조형과 낯선 표현 방식으로 더욱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는 새로운 추상화를 선보인다.

전시 기간 7월 15일까지 **문의** www.perrotin.com

© Catherine Opie. Courtesy Regen Projects, Los Angeles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리만머핀 서울 〈나의 해안에서 당신의 해안으로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199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의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촬영한 인물 사진 연작으로 이름을 알린 캐서린 오피의 개인전. 그의 기념비적인 인물 연작과 함께 전시 제목에 걸맞은 바다 풍경 연작 등 총 26점을 소개한다. 이번 바다 연작은 2009년에 캐서린 오피가 화물선을 타고 한국에서 캘리포니아 롱비치로 되돌아가던 열흘 동안 바다 위에서 부지런히 포착한 일출과 일몰 사진들이다. 또 서로 다른 인물 연작과 바다 연작 사이에 브리지 역할을 하는 'My Shore'와 'Our Moon' 등 두 작품은 이번 전시의 유일한 신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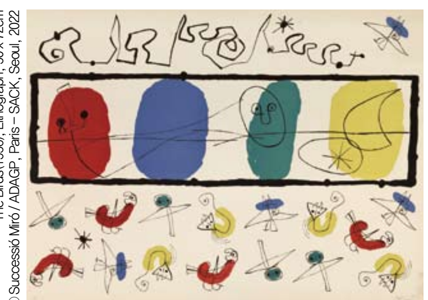
전시 기간 8월 20일까지 **문의** www.lehmannmaupin.com

이미지 제공_대구미술관

대구미술관 〈2022 다티스트 이교준, 박창서〉 개인전

대구미술관의 '다티스트'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대구, 경북에 거주하거나 출향한 작가 중 만 40세 이상 작가를 선정해 개인전과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작년 정은주, 차계남, 차규선 등 다티스트 선정 작가들의 개인전에 이어 올해 다티스트 작가로 뽑힌 원로 작가 부문 이교준, 중견 작가 부문 박창서 등 두 작가의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고 정점식 화백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정점식미술상은 1회 수상자로 스페이스 D 디렉터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인 양은희 미술사가를 선정했다.

전시 기간 10월 3일까지 **문의** artmuseum.daegu.go.kr


'The Birds'(1956), Lithograph, 50 × 72cm © Successió Miró / ADAGP, Paris – SACK, Seoul, 2022

마이아트뮤지엄 〈호안 미로 : 여인, 새, 별〉

여인, 새, 별, 그리고 태양, 달, 별자리 등 본인만의 언어로 독특한 예술 세계를 빚어낸 호안 미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인 그는 전통적인 회화 작법을 뛰어넘어 이후 세대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번 전시는 본인만의 뚜렷한 화풍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호안 미로의 후반기 작품 인생을 집대성해 그의 예술적 발전 양상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바르셀로나 호안 미로 미술관과 공동 주관해 호안 미로 미술관에서 엄선한 유화, 드로잉, 판화, 태피스트리, 조각 등 70여 점의 오리지널 작품을 공개했다.

전시 기간 9월 12일까지 **문의** www.myartmuseum.kr

이미지 제공_국립현대미술관(MMCA)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 등

한국의 채색화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벽사도) 복을 불러들이며(길상화) 교훈을 전하고(문자도) 중요한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는(기록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지만 오랫동안 한국 미술사에서 소외돼왔다. 〈생의 찬미〉는 이러한 한국 미술사의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국립현대미술관 최초로 한국의 채색화를 재조명한다. 채색화의 전통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민화와 궁중 장식화, 그리고 창작 민화와 공예, 디자인, 서예 등을 아우르는 8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한편 서울관에서는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의 전시인 〈히토 슈타이얼: 데이터의 바다〉(9월 19일까지), 미술 한류 3개년 프로젝트 〈감각의 공간, 워치 앤 칠 2.0〉 등의 기획전이 진행 중이다.

전시 기간 9월 25일까지 **문의** www.mmca.go.kr

Soir de Fête necklace

HIGH JEWELLERY

CHAUMET

PARIS